

1880년 『善騎隊軍案』의 기재 양식과 내용 분석

서 태 원 *

- 1. 머리말
- 2. 『선기대군안』의 기재 양식
 - 1) 將官
 - 2) 군병
- 3. 『선기대군안』의 기재 내용
 - 1) 군병의 선발 · 충원
 - 2) 군병의 나이
 - 3) 군병의 職任別 數 · 기능 · 신분
 - 4) 군병의 거주지
- 4. 맺음말

1. 머리말

『善騎隊軍案』(K2-549)은 선기대가 武衛所에 소속되었던 1880년(고종 17) 작성된 중앙군 군안이다. 따라서 『선기대군안』에 대한 연구는 조선후기 중앙군 군안의 기재 양식을 파악하고, 선기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군안에¹⁾ 대해서는 속오군 등 지방군을 중심으로 연구가

* 목원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

1) 조선후기 군안으로는 1596년(선조 29) 평안도 안주진관의 『鎮管官兵容貌冊』, 1685년(숙종

11) 전후에 작성된 『濟州束伍軍軍籍簿』, 1799년(정조 23)의 『河東府束伍軍兵保人戊午式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속오군의 身長·筋力,²⁾ 良賤混成,³⁾ 나이와 용모,⁴⁾ 三手別 구성·신분·직역·신체조건 등의 편성 실태와⁵⁾ 19세기 말 충청도·경상도 지방군과 충청도 평신진 舟師軍의 직임·신분⁶⁾ 등이 밝혀졌다. 아울러 속오군의 근간이 편제상으로 유지되었던 17세기 후반까지 軍籍은 실제 상황을 반영하였지만,⁷⁾ 18세기 후반 이후 군안에서는 군병의 용모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도 해명되었다.⁸⁾

하지만 기존의 군안 연구는 지방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중앙군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중앙군 군안인 『선기대군안』의 기재 양식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지방군에 비해 부족한 중앙군 군안 연구를 보완하고, 중앙군과 지방군 군안간의 그리고 16~19세기 군안간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하는 데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고종대 武衛所⁹⁾ 소속 선기대는 무위소처럼 親衛軍이었던 정조대 壯勇營과¹⁰⁾ 현종대

改都案(奎 1233), 육군박물관 소장 조선 말기의 군적, 1890년(고종 27) 작성된 『平薪鎮舟師軍兵辛卯式草都案』(想白古 355.22-P993) 등을 들 수 있다.

- 2) 이진갑, 1984 「1590년대 李朝鎮管官兵의 身長 및 筋力에 관한 연구」 『안동문화』 5.
- 3) 이겸주, 1990 「조선후기 사회신분 변동문제에 대한 연구: 군역의 良賤混成과 관련된 측면」 『울산사학』 3.
- 4) 정구복, 1994 「1596년 평안도 鎮管官兵編伍冊」 『고문서연구』 5.
- 5) 김우철, 1999 「성립기 속오군의 편성 실태: 『鎮管官兵編伍冊』과 『鎮管官兵容貌冊』의 분석」 『한국사연구』 105; 김우철, 2001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김우철, 2006 「17세기 후반 제주 속오군의 편성 실태: 『제주속오군적부의 분석』」 『한국사연구』 132.
- 6) 이연수, 1993 「이조말기의 군적: 육군박물관 소장 군적문서의 분석」 『학예지』 3; 서태원, 2011 「조선후기 충청도 평신진 연구」 『중앙사론』 34, 249~257면.
- 7) 김우철, 2006 앞의 논문, 105면.
- 8) 이겸주, 앞의 논문, 18면; 이연수, 앞의 논문, 66면; 김우철, 앞의 책, 231면; 서태원, 앞의 논문, 251면.
- 9) 무위소에 대해서는 이병주, 1977 『한국군제사: 근세조선후기편』, 육군본부, 295~298면; 최병우, 1990 「조선조말의 무위소연구」 『군사』 21; 최병우, 2000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경인문화사, 113~145면; 박은숙, 1997 「개항기(1876~1894) 군사정책 변동과 하급군인의 존재양태」 『한국사학보』 2, 208~210면; 은정태, 1998 「高宗親政 이후 정치체제 개혁과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사론』 40, 163~176면; 장영숙, 1999 「고종친정초기 군령 권의 추이와 군제개편(1873~1884)」 『사학연구』 58·59, 923~931면; 배항섭, 2002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117~150면 등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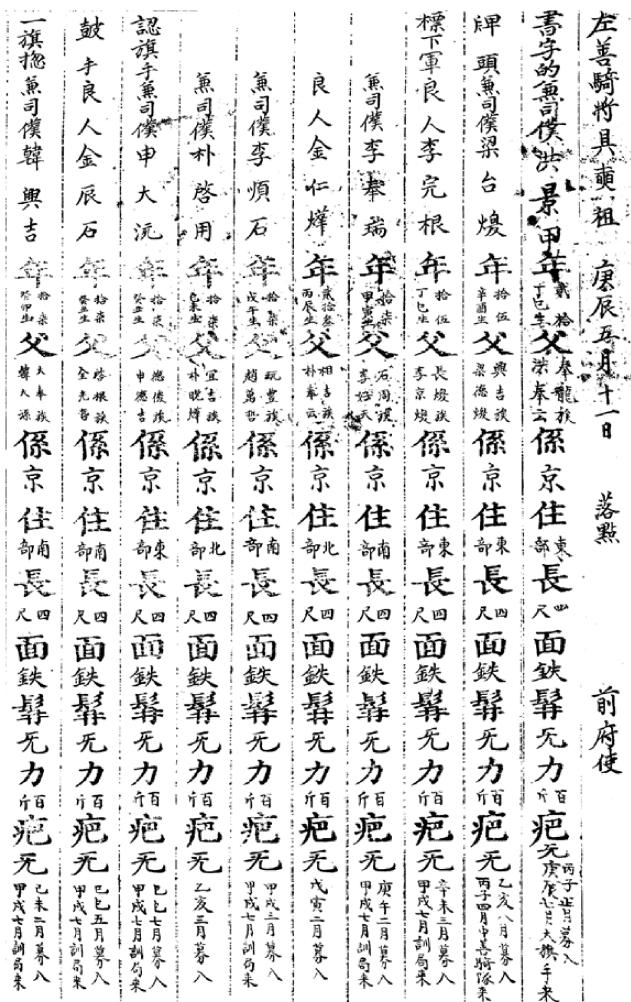
總衛營의¹¹⁾ 本營(內營)에도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선기대군안』을 통해 선기대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친위군에 소속된 군대나 다양한 병종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기대군안』에 대해 첫째 기재 양식을 살펴봄으로써 중앙군과 지방군 군안 사이의 그리고 16~19세기 군안 사이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밝히고, 둘째 기재 내용에 대해 군병의 선발·충원, 나이, 職任別 數·기능·신분, 거주지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선기대의 구조는 물론이고 설치·변천·기능 등도 파악하여 친위군의 한 단면을 이해해보려 한다.

-
- 10) 장용영에 대해서는 이태진, 1977 『한국군제사: 근세조선후기편』, 육군본부, 198-228면; 배우성, 1991 「정조년간 武班軍營大將과 군영정책」, 『한국사론』 24; 배우성, 2001 「정조의 군사정책과 『武藝圖譜通志』 편찬의 배경」, 『진단학보』 91; 유봉학, 1996 「정조대 정국 동향과 華城城役의 추이」, 『규장각』 19, 92-102면; 최효식, 2000 「장서각 소장 자료의 군제사적 의미」, 『장서각』 4, 111-113면; 장필기, 2012 「정조대 장용영의 창설과 운영」, 『조선후기 군사개혁과 장용영』, 수원화성박물관; 심승구, 1998 「19세기 전반 군영의 변동과 수도방위체제의 변화」, 『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202-223면; 송찬섭, 2001 「정조대 壯勇營 屯田의 설치와 운영」, 『論文集』 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노영구, 2002 「정조대 오위체제 복구 시도와 화성 방어체제의 개편」, 『진단학보』 93; 배항섭, 앞의 책, 19-23면; 나영일, 2003 『정조시대의 무예』, 서울대출판부; 김준혁, 2007 『조선 정조대 장용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희, 2009 「華城留守 趙心泰 연구」, 『조선시대 사학보』 50, 170-176면; 이왕무, 2009 「『本營圖形』을 통한 조선후기 장용영의 모습」, 『장서각』 21; 이왕무, 2012 『한국군사사』 7(조선후기 I), 육군본부(군사연구소), 491-591면; 정정남, 2009 「장용영의 한성부내 입지와 營舍의 건축적 특성: 『本營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 『장서각』 21; 이현주, 2012 『한국군사사』 9(근·현대 I), 육군본부(군사연구소), 148-156면; 김태완, 2012 「장용외영의 군사훈련과 華城府城操圖」, 『조선후기 군사개혁과 장용영』, 수원화성박물관; 최형국, 2013 『조선후기 기병전술과 마상무예』, 혜안; 최형국, 2013 「정조대 華城 방어체제에 따른 壯勇營의 군사조련과 무예훈련」, 『중앙사론』 38 등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 11) 총위영에 대해서는 최효식, 1995 『조선후기군제사연구』, 신서원, 187-224면; 최효식, 2000 「장서각 소장 자료의 군제사적 의미」, 『장서각』 4, 109-111면; 심승구, 앞의 책, 234-241면; 배항섭, 앞의 책, 32-38면 등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2. 『선기대군안』의 기재 양식

1880년(고종 17) 작성된 『선기대군안』은 1책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재 양식을 標下軍 등이 기재된 左哨의 첫 면 군안을 통해 살펴보면 <사진 1>과 같다.



<사진 1> 『선기대군안』¹²⁾

12) 『善騎隊軍案』(K2-549).

즉 『선기대군안』은 將官과¹³⁾ 군병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었다. 장관은 본부 또는 左·中·右哨 군안이 시작되는 첫 쪽 오른 쪽 맨 끝에, 職任, 성명, 落點된 해의 干支와 월·일, 前에 맡았던 관직이 기록되었다. 군병에 대해서는 직임, 신분, 성명, 나이와 출생한 해의 간지, 父의 이름과 친족의 성명, 소속 고을, 거주지, 身長, 얼굴 색깔, 수염, 筋力, 흉터, 선기대 등 각종 군대에 募入·卜入하였거나 東伍軍에 편성된 그리고 前 부대에서 선기대로 이속된 해의 간지와 월이 기재되었다. 따라서 군병이 장관에 비해 훨씬 많은 항목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根着 있고 우수한 군병을 선발·충원하며, 군병의 도망 방지 및 잘못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納馬·改馬의 효율성 증대 등을 고려한 조치로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선기대군안』의 기재 양식을 장관과 군병으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 장관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기재된 군병의 군안을 중심으로 『선기대군안』이 기재 항목에서 지방군 등 다른 군안과 어떤 공통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1) 將官

선기대 장관에는 최고 지휘관인 別將 1명과 左·中·右哨의 지휘관인 善騎將 3명이 설치되었는데, 『선기대군안』에서 장관의 기재 양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別將에 대해서는 “善騎別將徐相岳 庚辰五月十三日落點 前兵使”에서 알 수 있듯이 職任, 성명, 落點된 해의 干支와 월·일, 前에 맡았던 관직이 기재되었다. 즉 선기대 별장으로 서상악이 庚辰(1880년) 5월 13일에 낙점되었고, 前에 兵使였다는 내용이다. 별장은 정조대 『壯勇營大節目』에는 종2품 捕將·都監中軍·禁軍別將을 역임한 사람을,¹⁴⁾ 현종대 『總衛營事例』에는 禁軍別將·捕將을 지낸 사람은 물론이고 “본래 本廳에는 별장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마병이 이속되었음에도 將領이 없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별장 1員은 嘉善으로써 兵使를 역임한 자를 천거하여 임명한다.”고¹⁵⁾ 하여 병마절도사를 지낸 사람도 선발하도

13) 훈련도감에서는 별장과 초관을 將官 항목에 기재하였다[『訓局摠要』, 將官 別將二員 局別將三員 (중략) 馬兵哨官七員 步兵哨官二十六員]. 본고에서도 훈련도감처럼 별장과 좌·중·우초의 지휘관인 선기장을 장관으로 표기하여, 군병과 구분하였다.

14) 『壯勇營大節目』 권1, 差除 別將 “別將 以曾經捕將及都監中軍禁軍別將人 自本營受薦入啓 差下單付 而傳令踏內印 教鍊官賚傳爲白齊.”

록 하였다. 때문에 포장·도감중군·금군별장과 마찬가지로 종2품인 慶尙右兵使 를¹⁶⁾ 1875년에 역임했던 徐相岳이¹⁷⁾ 1880년 별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별장은 後金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설치된 마병을 지휘하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훈련도감의 경우 仁祖代 마병이 설치된 후 1682년(숙종 8) 左·右別將 휘하에 각각 3哨가 소속된 것이 확인된다.¹⁸⁾ 지방군도 북방 기마민족에 대항하기 위해 『鍊兵實記』를¹⁹⁾ 훈련교재로 사용하도록 하였고,²⁰⁾ 마병·별장의 설치로 鎮營의 편제와 지휘체계도 변화하였다. 즉 步軍 중심 營—司—哨—旗—隊의 진영 편제는 마병이 설치되면서 보군의 최상부 단위는 營과 司의 사이에 신설된 部로 대체되고, 진영의 최고 지휘관인 營將이 部의 지휘관인 千摠과 마병 지휘관인 별장을 통제하게 되는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²¹⁾

다음으로 左·中·右哨 지휘관인 선기장은 “左善騎將具奭祖 庚辰五月十一日落點 前府使”에서 알 수 있듯이, 별장처럼 職任, 성명, 落點된 해의 干支와 월·일, 前에 맡았던 관직이 기재되었다.²²⁾ 선기장은 邊地 겸험자나 內外將의 이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였는데,²³⁾ 변지경험자란 종3품 邊地僉使를 지낸 사람을 그리고 內外將은 지방군과 중앙군의 장수를 역임한 자를 의미한다.²⁴⁾ 그런데

15) 『總衛營事例』 권1, 軍色 官職 別將一員 “(전략) 本廳元無別將 而馬兵今既移屬 則不可無將領 別將一員 以嘉善至曾經兵使人擬差 (중략) 以上人擬差事啓下.”

16) 『大典會通』 권4, 兵典 京官職 “捕盜廳 各大將一員 從二品 訓練都監 中軍一員 從二品 龍虎營 別將一員 從二品”: 『大典會通』 권4, 兵典 外官職 慶尙道 “兵馬節度使三員 從二品 二 左道右道 一 觀察使兼.”

17) 『承政院日記』 고종 12년 8월 12일(병자).

18) 김종수, 2003 『조선후기 중앙군체연구: 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 혜안, 89-92면.

19) 백기인, 1996 『중국군사사상사』, 국방군사연구소, 187면; 노영구, 1997 「선조대 기효신서의 보급과 전법 논의」 『군사』 34, 147면.

20) 『仁祖實錄』 권16, 5년 4월 20일(병진), 34책, 195면.

21) 『輿地圖書』, 忠淸道 兵馬節度營 軍兵; 서태원, 2005 「조선후기 청주진영연구」 『호서사학』 42, 48-50면.

22) 한편 將校의 경우 19세기 후반 『평신진주사군병신묘식초도도안』에서 “旗牌官 閑良 尹道賢 丁丑正月初一日差”로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직임, 신분, 성명, 임명된 해의 간지와 월 및 일 등이 기재되었다.

23) 『壯勇營大節目』 권1, 差除 “善騎將 以曾經邊地及內外將履歷人 自本營受薦入啓 差下單付而差帖踏內印 巡令手賛傳爲白齊.”

고종대 선기대의 선기장은 정3품이 임명되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종3품 肅川府使를 지낸 후²⁵⁾ 좌선기장으로 1880년 5월 11일 낙점된 具奭祖는 1874년 정3품 어영청 千摠을,²⁶⁾ 종4품 慈城郡守에서 2월 17일 중선기장으로 낙점된 李根豐은²⁷⁾ 1876년 정3품 공주영장과²⁸⁾ 1879년 정3품 금위영 천총을,²⁹⁾ 府使에서 5월 9일 우선기장으로 낙점된 閔哲鎬은 1874년 정3품 어영청 천총을³⁰⁾ 지낸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밖에 1879년 左善騎將 채규상³¹⁾ 및 1881년 左善騎將 이규원, 中善騎將 원우상, 右善騎將 이민고도 모두 정3품 折衝이었다.³²⁾

한편 고종대 선기대 별장·선기장이 숙직한 將官의 直所는, 정조대 장용영 본영이 위치하였던 곳에 다시 설치되었던 현종대 총위영 新營의 將官直所 규모인 11칸(廁一間 草家)과³³⁾ 유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군병

『선기대군안』에서 군병의 기재 양식은 〈사진 1〉 左善騎將 왼쪽 세 번째 “標下軍 良人 李完根 年十五丁巳生 父長煥族李京煥 系京 住東部 長四尺 面鐵 髮无 力 白斤 疤无 辛未三月募入 甲戌七月訓局來”에서 알 수 있듯이, 職任, 신분, 성명, 나이와 출생한 해의 간지, 父의 이름과 친족의 성명, 소속 고을, 거주지, 身長, 얼굴 색깔, 수염, 筋力, 흉터, 각종 군대에 募入·卜入했거나 속오군에 편성된 해

24) 『正祖實錄』 권20, 9년 7월 14일(신유), 45책, 533면; 『高宗實錄』 권15, 15년 7월 19일(정묘), 1책, 576면.

25)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1월 30일(임술).

26)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11월 15일(갑인); 『大典會通』 권4, 兵典 京官職 御營廳 別後部 千摠一員 正三品.

27) 『承政院日記』 고종 16년 12월 8일(정미).

28)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12월 26일(임자).

29) 『承政院日記』 고종 16년 11월 2일(신미); 『大典會通』 권4, 兵典 京官職 禁衛營 千摠四員 正三品.

30)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4월 8일(경진).

31) 『承政院日記』 고종 16년 윤3월 29일(임인).

32) 『承政院日記』 고종 18년 11월 1일(기축).

33) 『總衛營事例』 권3, 軍色 公廝.

의 간지와 월 및 轉屬된 군병의 경우 前 부대에서 선기대로 옮겨 온 해의 간지와 월 등이 기재되었다. 따라서 장관에 비해 나이와 출생한 해의 간지, 父의 이름과 친족의 성명, 소속 고을, 거주지, 身長, 얼굴 색깔, 수염, 筋力, 흉터 등 훨씬 많은 항목이 기록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군병의 군안을 중심으로 1880년 중앙군 군안으로 작성된 『선기대군안』이, 지방군 등 조선후기 다른 군대의 군안과 기재 항목에서 어떤 공통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1) 기재 항목의 공통성

19세기 후반 『선기대군안』과 16~19세기 지방군 및 수군 군안은 職任, 신분, 성명, 나이, 소속 고을, 거주지, 身長, 수염, 흉터 등의 항목을 공통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군병의 성명은 『선기대군안』에는 정확히 기재되었으나, 1890년 『平薪
鎮舟師軍兵辛卯式草都案』(想自古 355.22-P993)에서는 주사군의 약 37.4%인 79명의 이름이 牙只로 기재되었고³⁴⁾ 16~18세기 말 속오군 관련 군안에서는 이름만 기재된 奴도 확인된다. 아울러 父名도 『선기대군안』에서는 17세기 말 『濟州東伍軍軍籍簿』처럼 정확히 표기되었는데, 부명의 기재는 父의 이름을 파악하여 군적 작성을 정확·용이하게 하고 조련 등 동원 필요성이 있을 때에 누락·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³⁵⁾ 하지만 부명을 1799년 『河東府東伍軍兵保人戊午式改都案』(奎 12333)에서는³⁶⁾ 夫之로 많이 표기하였고, 육군박물관 소장으로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청도 은진현 A형 군적은 절반 가량 그리고 경상좌도 H형 표하군 군적은 21%를 夫之로 기록하였으며, 19세기 후반 『평신진주사군병신묘식초도도안』에서는 약 47.4%가 夫支로 기재되었다.

반면 『선기대군안』은 16~17세기 군안에 비해, 군병의 용모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16세기 말 『鎮管官兵容貌冊』은 속오군 身長을 周尺(1척 21.4cm)을 사용하여 5尺 1寸~8척으로 그리고 17세기 말 『제주속오군군적부』는 黃鐘尺(1척

34) 서태원, 2011 앞의 논문, 251면.

35) 김우철, 2006 앞의 논문, 81면.

36) 이겸주, 앞의 논문, 15-16면; 김우철, 앞의 책, 229-239면.

34.12cm)을 사용하여 3척 6촌~4척 8촌으로 표기하였고, 두 군안에서 面은 鐵·癩·暫癩 등으로, 髮은 無·些·始生·暫生 등으로, 疣는 無 또는 흉터 위치를 腮·目上·項·手·胸·腹·耳·脚·足 등으로 기재하였다.³⁷⁾ 아울러 『진관관병 용모책』에서는 속오군의 근력도 50~190斤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선기대군안』은 18세기 말 이후 군안처럼 군병의 용모를 “長四尺面鐵鬚无力百斤疤无”로 획일적으로 표기했다. 속오군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조련이나 點考가 시행되지 않아 군병의 容貌疤痕에 대한 파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³⁸⁾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종대 선기대는 조련도 하고, 국왕의 護衛와 궁궐의 宿衛를 담당하는 군대였다. 따라서 『선기대군안』에서 군병의 용모를 똑같이 기재한 것은, 조총 등 火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체의 중요성이 감소되어 용모의 파악보다는 아버지·친족의 연대보증을 통해 군병을 관리하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2) 기재 항목의 차별성

『선기대군안』에는 16~19세기 지방군 및 수군 군안과 달리 출생한 해의 干支, 친족 성명, 다른 부대에서 선기대로 옮겨온 군병의 경우 전속된 해의 간지와 월 및 前 소속 부대 등의 항목이 기재되었다.

첫 번째로 나이 옆에 출생한 해의 간지를 기록하였다. 간지를 통해 『선기대군안』의 나이는, 군병이 각종 군대에 募入·卜入했거나 속오군에 들어간 때의 나이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진 1> 左善騎將 왼쪽 첫 번째 書字의 나이는 이십이고 丁巳年(1857)에 태어났는데, 맨 아래 칸을 보면 丙子(1876년)에 募入되었다. 따라서 그의 나이 20세는 1876년 모입된 때의 나이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아버지 이름 옆에 친족의 성명도 기재되었다. 친족에게도 보증을 서게 하여 군병의 선발·충원에서 내실화를 꾀하고, 군병이 도망가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음으로써 군병의 관리를 강화하려 한 것이다. 특히 장용영 선기대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官馬가 1哨에 30필을 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³⁹⁾

37) 이진갑, 앞의 논문; 정구복, 앞의 논문, 116-117면; 김우철, 앞의 책, 70-86면; 김우철, 2006 앞의 논문 97-104면.

38) 김우철, 앞의 책, 229-239면.

私馬의 비율이 높고, 군병이 納馬·改馬할 때에는 경제력이 요청되었으므로 아버지는 물론이고 친족의 보증도 요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세 번째로 다른 부대에서 옮겨 온 군병의 경우 전속된 해의 간지와 월 및 前 소속 부대 등을 기재하였다. 즉 〈사진 1〉 左善騎將 왼쪽으로 세 번째 표하군 李完根은 맨 아래 칸에 “辛未三月募入 甲戌七月訓局來”라고 기재되었는데, 이완근이 辛未(1871년) 3월에募入하여, 甲戌(1874년) 7월 訓局(훈련도감)에서 선기대로 옮겨 왔다는 내용이다. 선기대가 소속된 고종대 무위소는 장용영·총위영처럼 친위군으로 신설되었으므로, 훈련도감 등에서 군병을 확보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혹 선기대가 폐지되었을 때 군병이 환속될 군영을 파악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善騎隊는 말을 잘 타는 부대라는 의미로, 명칭에 技藝가 드러나 있으므로 『선기대군안』에서는 다른 군안과 달리 砲·射·刀 등 군병의 기예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장용영의 경우 선기대 左哨는 馬才 그리고 中·右哨는 技藝로 군병을 拷定하였고,⁴⁰⁾ 馬上才是 물론이고 柳葉箭·月刀 등을 시험보아 상을 준 것을⁴¹⁾ 감안하면 선기대 군병 중에는 馬才 이외에 다른 기예가 뛰어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병이라는 전제하에서의 기예이므로, 『선기대군안』에서는 별도로 기예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선기대군안』의 기재 내용

1) 군병의 선발·충원

선기대 군병 402명이 선발·충원된 해와 방법 및 數에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39) 『壯勇營大節目』 권1, 馬政.

40) 『壯勇營大節目』 권1, 軍制 善騎隊.

41) 『承政院日記』 현종 13년 10월 10일(병진); 『承政院日記』 고종 16년 4월 3일(병오).

〈표 1〉 선기대 군병의 선발·충원된 해와 방법 및 수

(단위: 명)

선발·충원 방법 편제 및 선발·충원된 해	募 入	ト 入	兼 役	轉屬											還 屬	합 계				
				訓 局	禁 衛 營	御 營 廳	武衛所													
							帳 幕 軍	牙 兵	吹 鼓 手	大 旗 手	塘 報 手	燈 籠 軍	左 司	右 司	선 기 대	武 藝 廳				
本部	1874년(갑술)	1		8	7	8											24			
	1875년(을해)	2							1								3			
	1876년(병자)	1												1			2			
	1877년(정축)	1										1					2			
	1878년(무인)	1					3										4			
	1879년(기묘)		2											1			3			
	1880년(경진)		1						1						2		4			
左哨	1874년(갑술)	3		61													64			
	1875년(을해)	4															4			
	1876년(병자)	4											1				5			
	1877년(정축)	1															1			
	1878년(무인)	4															4			
	1879년(기묘)	41															41			
	1880년(경진)								1								1			
中哨	1874년(갑술)	5		60													65			
	1875년(을해)	2									1						3			
	1876년(병자)	5															5			
	1877년(정축)	1															1			
	1878년(무인)	2					1										3			
	1879년(기묘)	36	1							1	1		1	1			41			
	1880년(경진)																			
右哨	미상	2															2			
	1874년(갑술)	3		56													59			
	1875년(을해)	5															5			
	1876년(병자)	2															2			
	1877년(정축)																			
	1878년(무인)	1															1			
	1879년(기묘)	44									1				1	46				
합계	1880년(경진)	6											1				7			
	1874년(갑술)	12		185	7	8											212			
	1875년(을해)	13							1				1				15			
	1876년(병자)	12												1	1		14			
	1877년(정축)	3											1				4			
	1878년(무인)	8					3	1					1	1	1	2	12			
	1879년(기묘)	121									1	1	1	1	2		131			
1880년(경진)				6	1					1	1				1	2	12			
미상				2													2			
1874~1880년 합계				177	1	3	185	7	8	3	1	2	2	1	2	4	1	2	1	402

즉 『선기대군안』에 기재된 군병 402명의 선발·충원된 해와 수는 1874년 212명, 1875년 15명, 1876년 14명, 1877년 4명, 1878년 12명, 1879년 131명, 1880년 12명, 미상 2명이었다. 아울러 선발·충원된 방법과 수는 轉屬 220명, 募入 177명, ト入 1명, 兼役 3명, 還屬 1명이었다. 그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기대가 창설된 1874년 선발·충원된 군병의 수는 募入 12명, 轉屬 200명 등 212명이었다. 전속이 200명으로 매우 많았는데, 1874년 궁궐 숙위를 담당 하던 把守軍의 칭호를 武衛所로 바꾸고,⁴²⁾ 훈련도감 등의 군병을 옮겨 무위소를 강화하면서 선기대도 설치하였다. 즉 1874년 훈련도감 1,385명(마군 238명, 표하군 293명, 아병 5명, 별파진 26명, 복마군 33명, 보군 590명, 무예청 200명), 금위영 391명(표하군 164명, 복마군 19명, 순령수 및 놔자 10명, 보군 198명), 어영청 387명(표하군 162명, 복마군 19명, 순령수 및 놔자 10명, 보군 196명) 등에서 2,163명이 무위소로 전속되었다.⁴³⁾ 이 중에서 훈련도감 마군 185명, 금위영 표하군 7명, 어영청 표하군 5명 및 복마군 3명 등 200명이 선기대로 옮겨왔다. 따라서 총위영 선기대가 訓局의 마병 右·前哨 및 別隊 각 1哨를 옮겨와 설치된 것처럼,⁴⁴⁾ 무위소 선기대도 훈련도감에서 전속된 군병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1874년 선기대에 배치된 212명은 본부 24명을 제외하면 178명이므로 1초 정원이 120명인 선기대 3초를 만들기에는 군병의 수가 너무 적고, 1879년 선기대 中哨가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1874년 당시에는 좌·우초만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募入 12명도 주목된다. 1874년부터 1880년까지 선기대에 모입한 군병은 177명이었다. 훈련도감 군병의 선발·충원 방식은 募集 → 陞戶制 → 승호제, 京

42) 『日省錄』 고종 11년 6월 20일.

43) 『高宗實錄』 권11, 11년 7월 11일(신해), 1책, 468면; 8월 28일(무술), 1책, 473면;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7월 8일(무신), 7월 11일(신해), 7월 12일(임자), 7월 30일(경오), 8월 2일(임신), 8월 28일(무술), 9월 26일(을축); 『日省錄』 고종 11년 4월 29일, 8월 28일, 9월 26일; 『增補文獻備考』 권110, 兵考2 고종 11년 7월(고전간행회, 1957 『增補文獻備考』 中, 동국문화사영인본, 329면); 『增補文獻備考』 권226, 職官考13 續 武衛營(고전간행회, 1957 『增補文獻備考』 下, 동국문화사영인본, 636면); 이병주, 앞의 책, 296-297면; 최병옥, 앞의 책, 124-126면; 배항섭, 앞의 책, 122-127면.

44) 『總衛營事例』 권1, 軍色 軍制 “以訓局馬兵右前哨及別隊各一哨移付 以左右別隊稱號 每哨旗摠三名 隊長九名 書字的兼教師一名 牌頭一名 鼓手一名 認旗手一名 火兵九名 因傳令 別隊改號以善騎隊 傳令見別將條.”

募集·待年軍으로 변하였는데,⁴⁵⁾ 선기대 군병도 훈련도감처럼 매달 급료를 받았으므로 모집된 군병이 선기대에서 비중이 커졌다. 아울러 선기대는 국왕과 궁성을 수호하는 중앙군이므로 군병의 성명과 아버지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생한 해의 간지, 친족의 성명, 전속한 군병의 前 소속부대 등도 표기하여 19세기 지방 육군이나 수군보다 군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 하였다. 반면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 지방 육군이나 수군 군안에서는 군병이 어느 해에 군대에 편입 또는 충정된 기록만 있다는 점에서, 군병의 선발·충원이나 군역의 부과 방식에서 훈련도감·선기대 등 중앙군과 차이가 나타난다.

1875년에 선발·충원된 군병의 수는 募入 13명, 轉屬 2명 등 15명이었다. 1874년에 비해 모입은 1명 증가했지만, 전속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전속보다 모입이 많은 현상은, 『선기대군안』이 작성된 1880년까지 계속되었다. 전속 2명은 吹鼓手에서 본부 표하군으로 옮긴 김덕록과 左司의 右哨에서 선기대 中哨 표하군으로 온 이인준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前 소속 군대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左司右哨來”나 “吹鼓手來”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이유는 선기대처럼 무위소 소속의 군병이므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1881년(고종 18)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⁴⁶⁾ 『武衛所提調都統使將官將校軍兵總數案』(K2-4858)에는 善騎別將 휘하에 선기대와 吹鼓手 118명을 비롯하여 巡令手 118명, 大旗手 174명, 帳幕軍 62명, 牙兵 96명, 燈籠軍 84명, 塘報手 95명, 標下軍 42명, 工匠牙兵 39명 등이 기재되었고, 左司·右司의 군병 등도 확인된다.

1876년에 선기대에 선발·충원된 군병의 수는 募入 12명, 轉屬 2명 등 14명이었다. 전속 2명은 무위소 右司 吹手에서 본부 서자지로 옮긴 윤성문과, 中善騎隊

45) 김종수, 앞의 책, 96-114면.

46) 『武衛所提調都統使將官將校軍兵總數案』에는 都統使 李景夏, 善騎別將 李教獻, 左善騎將 李奎遠, 中善騎將 元禹常, 右善騎將 李敏臯, 左司把摠 韓圭稷의 성명이 기재되었다. 『承政院日記』의 1881년 기록에 의하면, 8월 27일 병이 심한 중선기장 李翰榮의 후임에 원우상이 임명되었다. 都統使 李景夏는 9월 6일 물려났다가 12월 7일 다시 임명되었으나, 12월 25일 무위영 대장이 되었다. 선기별장 이교현·좌선기장 이규원·우선기장 이민고·좌사과총 한규직은 9월 23일 존재가 확인되며, 한규직은 12월 29일 신설된 장위영 中軍이 되었다[『承政院日記』 고종 18년 8월 27일(병술), 9월 6일(을미), 9월 23일(임자), 12월 7일(을축), 12월 25일(계미), 12월 29일(정해)]. 따라서 『무위소제조도통사장관장교 군병총수안』은 1881년에 작성되었다고 여겨진다.

에서⁴⁷⁾ 左善騎隊 牌頭로 온 梁台煥이다. 이를 통해 무위소는 물론이고 선기대 내에서도 군병의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해에 兼內吹⁴⁸⁾ 44명(용호영 10명, 훈련도감 12명, 어영청 11명, 금위영 11명),⁴⁹⁾ 標下軍 10명(어영청 2명, 용호영 2명, 훈련도감 2명, 금위영 2명, 총용청 2명),⁵⁰⁾ 挾輦軍⁵¹⁾ 100명(훈국), 大旗手 35명(훈국 15명, 금위영 10명, 어영청 10명)⁵²⁾ 등 189명이 무위소로 전속되었지만,⁵³⁾ 선기대로 옮겨온 군병은 없었다.

1877년에 선발·충원된 군병의 수는 모입 3명, 전속 1명 등 4명이었다. 그 중에서 전속 1명은 무위소 燈籠軍에서 본부 표하군으로 옮겨 온 김덕순인데, 등롱군은 무위소에 84명(壯藝廳 門旗手 20명, 卜馬軍 5명 포함)이 설치되었다.⁵⁴⁾ 1807년 훈련도감 등롱군이 御駕를 앞에서 호위한 것처럼,⁵⁵⁾ 무위소 등롱군도 그 러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78년에 선발·충원된 군병의 수는 모입 8명, 전속 4명 등 12명이었다. 전속은 무위소 帳幕軍에서 본부 표하군으로 옮겨 온 송충신·김두칠·양윤성 등 3명과 무위소 牙兵에서⁵⁶⁾ 선기대 中哨 서자지로 온 박영봉인데, 장막군은 무위소에

47) 그런데 1879년 中哨가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右善騎隊를 中善騎隊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48) 흑내취는 임금이 거동할 때나 御前에서 의식을 거행할 때 군악을 연주하기 위해 지방에서 뽑아 올린 군병인데, 정조대 훈련대장 등을 역임한 장지항의 건의를 채택하여 군문의 吹鼓手를 각각 1脾씩 뽑아 선전관청에 소속시킨 다음 황내취는 內吹로 흑내취는 兼內吹로 고쳐 각 군문의 吹鼓수가 임금이 거동할 때 대령하는 폐단을 덜도록 하였다[『正祖實錄』 권30, 14년 7월 26일(갑진), 46책, 161면; 『大典會通』 권4, 兵典 侍衛].

49)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7월 1일(기미).

50)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7월 12일(경오), 14일(임신), 15일(계유).

51) 협련군은 국왕이 타는 輦을 호위하는 군병인데, 현종이 온양온천에 거동한 1667년 800명이 동원되었다[『현종개수실록』 권17, 8년 4월 11일(을묘), 37책, 561면].

52)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9월 8일(을축).

53) 배항섭, 앞의 책, 124면 및 126면.

54) 『武衛所提調都統使將官將校軍兵總數案』(K2-4858), 善騎別將李敎獻 燈籠軍.

55) 『備邊司臘錄』 198책, 순조 7년 7월 25일.

56) 아병은 각 단위부대 지휘관에 소속된 직할 병력으로, 17세기 하나의 병종으로 자리잡았으며, 최초 감영에 설치되기 시작한 아병은 총용청·수어청 등 다른 기관에도 확산되었다.

62명(복마군 17명 포함)이 설치되었다.⁵⁷⁾ 1731년(영조 7) 영조의 長陵 행차 때 어영청 장막군 11명이 고양군 宿所에서,⁵⁸⁾ 1752년 賢嬪의 發輶 때 훈련도감 장막군 70명이 畫停所와 묘소에서,⁵⁹⁾ 1795년(정조 19) 혜경궁 홍씨의 환갑 進饌禮 때 장용영 장막군 47명이 연희당에서⁶⁰⁾ 포장을 설치하고 거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위소 장막군도 국왕의 陵幸 및 왕실의 장례나 잔치 등에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여겨진다.

1879년에 선발·충원된 군병의 수는 募入 121명, 轉屬 6명, 兼役 3명, 還屬 1명 등 131명이었다. 우선 모입 121명이 주목된다. 1874~1880년까지 모입은 177명이었는데, 1879년에는 가장 많은 121명이 모입되었다. 그것은 1879년에 120명 정원의 선기대 中哨가 신설되고 中善騎將이 1員도 임명되었다는⁶¹⁾ 점에서, 중초를 설치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아울러 모입한 121명을 중초에 36명, 좌초에 41명, 우초에 44명 배치하였고, 좌·우초에서 새로 배치된 수만큼 군병이 중초로 이동함으로써 선기대의 좌·중·우초 체계가 확립되게 된다.

轉屬 6명 중 무위소 대기수에서 中哨의 隊員으로 옮겨 온 윤명국은 “丙子閏五月ト入己卯十一月大旗手來”라고 한 것에서, 1876년 무위소 복마군으로 입대하였다가 대기수로 직임을 바꾼 후 1879년 선기대로 전속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

다(송양섭, 2003 「17·18세기 아병의 창설 기능」,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379-380면). 아울러 아병과 관련하여 京軍門 및 지방 营·鎮의 歇役으로 인한 役弊를 해명한 연구(정연식, 1985 「17·18세기 양역 군일화 정책의 추이」, 『한국사론』 13, 130-133면 및 135-136면)와 강원도 이천 아병의 특징과 아병의 전체적 성격을 밝힌 연구(김우철, 1998 「17세기 후반 강원도 이천의 직역분포와 속오군의 겹역 실태」, 『군사』 36, 147-158면) 등도 주목된다.

57) 『武衛所提調都統使將官將校軍兵總數案』(K2-4858), 善騎別將李教獻 燈籠軍.

58) 『承政院日記』 영조 7년 8월 12일(임인).

59)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1월 16일(무인).

60) 『承政院日記』 정조 19년 6월 18일(정유).

61) 『高宗實錄』 권16, 16년 11월 30일(기해), 1책, 606면: 『承政院日記』 고종 16년 11월 30일(기해) “又以武衛所言啓曰謹奉傳令內本所左右司把摠既以領軍之任每於動駕時陣上進去矣攔後把摠不可不磨鍊而善騎隊一哨既爲新設則不可無將領且哨官之闕內入直番次苟艱亦不得不變通攔後把摠一員中善騎將一員哨官五員加設而班部哨官之尙未設施有欠疏鬱之政一窠依壯勇營例施行事命下矣依此定式之意敢啓傳曰知道.”

러 무위소 燈籠軍에서 선기대 右哨 書字의으로 옮겨 온 조재윤과 무위소 塘報手에서 선기대 중초 隊員으로 온 이경근이 있었는데, 당보수는 무위소에 95명(武藝廳 門旗手 20명, 卜馬軍 17명 포함)이 설치되었다. 훈련도감 당보수는 戰笠을 쓰고 칼을 차며 警報를 알리는 작은 황색 기를 가졌다는 점에서,⁶²⁾ 무위소 당보수도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밖에 무위소 左司 1명과 右司 2명도 선기대로 옮겨 왔다.

兼役⁶³⁾ 3명은 京畿 束伍軍이다. “己卯九月束伍入”을 통해 1879년 9월 전한석은 양성현 남면, 최신길은 삽녕군 북면, 윤현목은 남양부 며지곶면 속오군에 편성되었다가, 전한석·최신길은 선기대 본부 그리고 윤현목은 중초 표하군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還屬도 1명 있었는데, 이만길이 右哨 표하군으로 환속되었다. 환속은 軍士 중 죄를 저질렀지만 도둑질이나 綱常에 관련되지 않는 경우(仕日을 삭감하여), 정해진 역을 기피하고 他役戶로 逃入한 경우, 나이를 속여 늙었다는 이유로 군역에서 제외된 경우(服務年限을 연장하여)⁶⁴⁾ 등에 해당되면 본래의役을 담당하도록 한 조치인데, 이만길이 환속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880년은 『선기대군안』이 작성된 해인데, 이 해에 선발·충원된 군병의 수는募入 6명, 卜入 1명, 轉屬 5명 등 12명이었다. 이 중에서 卜入 1명은 선기대 본부 복마군으로 모집된 15세 尹根伊이다.⁶⁵⁾ 아울러 전속 5명은 前 소속처가 모두 무위소였는데, 홍경갑은 대기수에서 左哨 書字의으로, 이광록은 취고수에서 본부 표하군으로, 전홍돌은 右司 右哨의 복마군에서 中哨 隊員으로, 함연풍과 황준모는 1874년 훈련도감에서 무위소로 이속된 武藝廳에서⁶⁶⁾ 선기대 본부 서자지로 옮겨 왔다.

62) 『萬機要覽』 軍政編二, 訓鍊都監 服着 塘報手.

63) 속오군의 兼役에 대해서는 김우철, 1998 앞의 논문, 158-167면이 참고가 된다.

64) 『大典會通』 권4, 兵典 軍士還屬.

65) 그런데 본부 복마군인 마원갑·김만길·윤길이는 어영청 복마군에서 선기대 복마군으로 옮겨왔으나, 복마군이었던 중초의 이경근·이순창·노영산·윤명국과 우초의 김응인은 선기대로 전속된 후에는 복마군을 담당하지 않았다.

66)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8월 2일(임신): 『增補文獻備考』 권226, 職官考13 繢 武衛營(고 전간행회, 1957 『增補文獻備考』 下, 동국문화사영인본, 636면).

2) 군병의 나이

(1) 선기대 군병의 募入 · 卜入 · 束伍入 때의 나이

『선기대군안』에는 군병의 나이와 출생한 해의 간지, 군병이 각종 군대에 募入 · 卜入 또는 束伍入한 해의 간지와 월 등이 기재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선기대군안』의 나이는, 군병이 각종 군대에 募入 · 卜入 또는 속오군에 들어간 해의 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사진 1〉 좌선기장 왼쪽으로 네 번째 標下軍兼司僕 李奉瑞는 “年十柒 甲寅生 (중략) 庚午二月募入 甲戌七月訓局來”라고 기재되었는데, 나이 17세는 이봉서가 甲寅(1854년)에 태어났으므로 募入한 庚午(1870년)의 나이를 의미한다. 선기대 군병의 募入 · 卜入 또는 束伍入 때의 나이를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선기대 군병의 募入 · 卜入 · 束伍入 때의 나이

(단위: 명)

나이별 편제별	10대						20대						30대						40대		합계
	15 세	16 세	17 세	18 세	19 세	미 상	20 세	21 세	22 세	23 세	25 세	26 세	28 세	30 세	31 세	32 세	34 세	35 세	40 세		
本部	6	2	9	5	3		3	1	2	1	1	2	1	1	2	2	1			42	
左哨	44	20	26	7	4		13	1	2	1	2									120	
中哨	26	29	20	19	4	1	14	3	1	1								1	1	120	
右哨	35	26	20	18	6		11	2	1						1					120	
합계	111	77	75	49	17	1	41	7	6	3	3	2	1	2	2	2	1	1	1	402	
	330						63						8						1		

즉 선기대 군병은 선기대에서 군대생활을 시작했거나 다른 군대에서 옮겨온 경우로 구분되는데, 선기대 군병이 각종 군대에 募入 · 卜入하였거나 속오군에 들어갔던 나이는 10대 330명, 20대 63명, 30대 8명, 40대 1명이었다. 평균 나이는 약 17.4세였으며, 10대가 330명으로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15세가 111명으로 최고였다. 반면 40세인 中哨의 隊員 金宜宗은 매우 늦은 나이에 선기대에 모집되었다. 그런데 『續大典』(1746년)의 “滿 60세로써 군역을 45년 담당한 軍士는 物故者 및 도망하여 10년이 지난 자와 함께 代定한다.”는⁶⁷⁾ 규정을 감안하면 16세

부터 군역을 담당해야 하는데, 『선기대군안』에는 15세가 111명이나 기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말 『濟州東伍軍軍籍簿』에서도 나타나는데, 나이가 식별되는 속오군 중 35명이 15세였다.

이처럼 15세가 正軍에 편성되는 것은 군대 新設이나 심한 전염병으로 군병이 많이 죽는 등의 이유로 16세 이상의 男丁이 부족한 경우로 여겨진다. 아울러 待年軍이 元軍에 편성될 때도 15세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년군은 원군의 사망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중앙 5군영,⁶⁸⁾ 용호영 및 평안감영 壯中衛⁶⁹⁾ 등에 설치되었는데,⁷⁰⁾ 子姪軍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 것에서⁷¹⁾ 알 수 있듯이 원군의 아들·조카 등으로 구성되었다.⁷²⁾ 따라서 대년군에는 오랜 동안 원군으로 승격되지 못한 것⁷³⁾ 등의 이유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대년군은 대부분 15세 이하라고 여겨진다. 그러한 사실은 1778년 정조가 屏門의 把守에 兒弱이 많이 포함되어 소홀하다고 지적하자 홍국영이 대년군을 파수에 세우므로 어리고 약한 자가 있다고 답변한 것이나⁷⁴⁾ 1790년 漢旅를 신설할 때 入屬되지 못해 紿料를 받지 못하는 兒弱은 대년군의 예에 따라 별도로 명부를 만들라는 것⁷⁵⁾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67) 『續大典』 권4, 병전 免役 “軍士 物故者 年滿六十而應役四十五年者 逃亡過十年者 並代定.”

68) 김종수, 앞의 책, 113-114면.

69) 『備邊司謄錄』 205책, 순조 16년 11월 3일.

70) 그밖에도 대년군은 瘦瘦이 번성하여 良丁이 부족한 경우[『承政院日記』 숙종 44년 7월 16일(계해)], 호랑이나 표범을 혼자 잡거나 中·大 이상을 先殺한 경우[『承政院日記』 정조 7년 12월 19일(병자): 『承政院日記』 정조 9년 1월 30일(경진): 『承政院日記』 순조 4년 4월 11일(기사): 『萬機要覽』 軍政編二, 訓練都監 捉虎分授], 能麼兒講에서 首位를 차지한 경우(『萬機要覽』 軍政編二, 附龍虎營 繢大典同禁軍廳 標下軍能麼兒; 軍政編三, 禁衛營 京軍能麼兒講: 軍政編三 御營廳 取才能麼兒軍) 등에 원군으로 편성되었다.

71) 『備邊司謄錄』 160책, 정조 3년 3월 13일.

72) 『備邊司謄錄』 55책, 숙종 30년 11월 27일; 『承政院日記』 고종 9년 3월 5일(기축).

73) 『日省錄』 정조 19년 10월 14일.

74) 『日省錄』 정조 2년 5월 16일.

75) 『正祖實錄』 권29, 14년 3월 19일(기해), 46책, 108면.

(2) 『선기대군안』이 작성된 1880년 선기대 군병의 나이

① 1880년 선기대 군병의 나이

『선기대군안』에 기재된 나이는, 군병이 각종 군대에募入·卜入했거나 속오군에 편성되었을 때의 나이이다. 따라서 1880년 선기대 군병의 나이는, 『선기대군안』의 나이에다가 1880년에서募入·卜入·束伍入한 해의 연도를 뺀 차이를 더하면 된다. 즉 〈사진 1〉 左善騎將의 왼쪽 맨끝 一旗摠 兼司僕 韓興吉은 “年十柒癸卯生 (중략) 己未二月募入 甲戌七月訓局來”로 기재되었는데, 1880년 한홍길의 나이는 『선기대군안』의 나이 17세에다가 1880년에서募入한 해인 1859년(己未)을 뺀 차이인 21을 더한 38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산된 1880년 선기대 군병의 나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1880년 선기대 군병의 나이

(단위: 명)

즉 1880년 선기대 군병의 나이는 15~59세였고, 10대 102명, 20대 184명, 30대 71명, 40대 32명, 50대 13명이었다. 20대가 184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단일 나이로는 16세가 39명으로 최고로 많았다. 가장 어린 나이인 15세가 6명이 있는 반면, 최고로 나이가 많은 59세도 3명이 있었다. 미상 1명을 제외한 1880년 선기대 군병 401명의 평균 나이는 약 26.6세였다.

② 1880년 선기대 군병의 신분별 나이

1880년 선기대 군병의 신분별 나이는 <표 4>와 같다.

<표 4> 1880년 선기대 군병의 신분별⁷⁶⁾ 나이

(단위: 명)

나이별 신분별	10대					20대										30대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미상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양인	6	39	19	10	28	15	26	12	15	17	20	9	11	12	7	1	7	4	5	2	2	1
	102					145										21						
겸사복						1	1	2	2	6	4	2	6	15		5	14	3	5	4	2	
	39										33											
합계	6	39	19	10	28	16	26	13	17	19	26	13	13	18	22	1	12	18	8	7	6	3

나이별 신분별	30대				40대								50대							합계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42세	43세	44세	45세	46세	47세	48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7세	59세		
양인	1	2	1	1	3	1				1	3	1				1	1						
	5		9												2							284	
겸사복	2	6	2	1	4		2	4	3	4	3	1	1	1	2			2	1		3	114	
	11				22								9										
출신			1		1													1	1			4	
	1				1								2										
합계	3	8	3	3	7	2	2	4	3	5	6	2	1	1	2	1	1	2	2	1	3	402	

76) 속오군은 兼役이므로 1596년 『진관관병용모책』과 17세기 후반 『제주속오군군적부』에서 는 職任 아래 칸에 정병·보군·감사·수군·기병·겸사복·향리·私奴 등 다양한 직역 이 기재되었다. 반면 육군박물관 소장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상좌도 표하군 군안에는 '良'으로, 1890년 『평신진주사군병신묘식초도안』에는 장교는 '閑良', 군 병은 대부분 '良'으로 기재되었다. 19세기 후반 중앙군 군안인 『선기대군안』에서도 군병 은 '양인', '겸사복', '출신'으로 나뉘고 양인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선기대 군병을 신분 으로 분류하였다.

즉 양인 군병은 전체의 약 71%였고, 10대 102명, 20대 145명, 30대 26명, 40대 9명, 50대 2명 등 284명이었다. 20대가 145명으로 가장 많고, 단일 나이로는 16세가 39명으로 최고였다. 15세부터 53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나이는 약 23세였다. 본부에 21명, 좌초에 91명, 중초에 82명, 우초에 90명이 배치되었다.

겸사복 군병은 전체의 약 29%로, 양인에 이어 두 번째였다. 20대 39명, 30대가 44명, 40대가 22명, 50대가 9명 등 114명이었고, 30대가 44명으로 최고로 많았다. 20세부터 59세까지 있었고, 평균 나이는 약 35세였다. 본부에 21명, 좌초에 26명, 중초에 38명, 우초에 29명이 설치되었다. 겸사복 군병이 양인 군병에 비해 가장 어린 군병은 5세 그리고 평균 나이는 12세 정도 많은 것은, 양인 군병이 試才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 등을 통해 겸사복으로陞級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出身 군병은 전체의 약 1%였고, 39세 · 41세 · 55세 · 57세가 각각 1명씩 4명이었다. 좌초에 3명, 우초에 1명이 배치되었다. 평균 나이는 48세였다. 가장 어린 군병은 39세로 양인 15세나 겸사복 20세에 비해 그리고 평균 나이 48세는 양인 약 23세나 겸사복 35세에 비해 매우 많았다. 출신이 무과 합격자이므로 그러하다고 여겨진다.

3) 군병의 職任別 數 · 기능 · 신분

고종대 무위소 선기대 군병의 공통적 기능은 국왕을 호위하고 궁궐을 숙위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고종이 육상궁 · 연희궁 · 宗廟 · 景慕宮 등을 展拜 · 展謁할 때,⁷⁷⁾ 사직단 · 종묘 · 경모궁 등에 齋宿할 때,⁷⁸⁾ 文廟에서 酎獻禮를 할 때,⁷⁹⁾ 使臣을 맞이하기 위해 館所에 거동할 때,⁸⁰⁾ 건원릉 등에 幸行할 때,⁸¹⁾ 창덕궁에 還

77) 『承政院日記』 고종 12년 3월 27일(갑자);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7월 3일(신유); 『承政院日記』 고종 14년 7월 10일(계해).

78)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윤5월 19일(경진);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12월 25일(신해); 『承政院日記』 고종 14년 4월 26일(신해).

79) 『承政院日記』 고종 17년 9월 17일(임오).

80) 『承政院日記』 고종 12년 4월 2일(무진); 『承政院日記』 고종 15년 12월 8일(계미).

81)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2월 21일(계미).

御할 때⁸²⁾ 등에서, 선기대는 武衛都統使나 別將의 지휘를 받아 大駕를 주로 先廟에서 호위하였다. 아울러 선기대는 1876년 고종이 出陣한 將卒과 外方 砲軍의 노고를 위로한 후 獄饋하기 위해 광화문에 親臨했을 때, 고종 주변을 둘러싸며 호위하였다.⁸³⁾ 장시간 왕의 호위에 참가한 선기대 군병에게는, 정조대 혜경궁 흥씨의 華城 회갑연 때 어가를 8일 20시간 쯤 호위한 선기장 2명, 선기대 230명, 선기장 표하군 16명에게 각각 米 2두를 준 것처럼⁸⁴⁾ 쌀 등을 주어 노고를 위로하였다. 선기대 군병은 적개는 20명에서⁸⁵⁾ 많게는 1880년 文廟의 작현례나 무위소가 무위영에 통합된 1882년 왕세자의 嘉禮親迎처럼 2哨가 동원된 경우도 있지만,⁸⁶⁾ 대부분 1초가 국왕의 侍衛에 참여하였다. 더욱이 고종대 선기대 군병은 궁궐의 直房에 入直하거나⁸⁷⁾ 通化門부터 館峴까지의 궁궐 경비⁸⁸⁾ 등을 통해 궁궐의 扈衛도 담당하였다. 다음으로 선기대 군병의 직임별 數·기능·신분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標下軍

표하군은 선기대 최고 지휘관인 別將과 좌·중·우초 지휘관인 善騎將의 手下兵이다. 표하군은 丙寅洋擾 때 훈련도감 표하군이 선봉부대로 참전한 것에서⁸⁹⁾ 우선적으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별장 표하군은 본부에 42명이 설치되었는데,⁹⁰⁾ 서자지 4명, 패두 1명은 좌·중·우초 서자지·패두와 함께 그리고 복마군 4명도 따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별장 표하군으로 33명만 다루었다.

82) 『承政院日記』 고종 14년 2월 12일(무술).

83)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2월 2일(갑자).

84) 『圜行乙卯整理儀軌』 권3, 을묘 2월 24일.

85) 『承政院日記』 고종 12년 5월 27일(계해).

86) 『承政院日記』 고종 17년 9월 17일(임오);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2월 17일(계유).

87) 『承政院日記』 고종 12년 5월 27일(계해).

88) 『承政院日記』 고종 15년 5월 12일(신유).

89) 『高宗實錄』 권3, 3년 9월 8일(갑자), 1책, 233면.

90) 선기대 別將의 標下軍은 『武衛所提調都統使將官將校軍兵總數案』에서도 42명이었는데,

정조대 장용영은 서자지 3명, 패두 3명, 복마군 2명을 포함하여 40명이었다[『正祖實錄』

권37, 17년 1월 12일(병오), 37책, 5면; 『壯勇營大節目』 권1, 軍制 別將標下軍].

선기장 표하군은 좌·중·우초에 5명씩 15명이었다.⁹¹⁾ 표하군 48명의 평균 나이는 약 31.5세였고,⁹²⁾ 양인 29명, 겸사복 19명이었다.

한편 표하군 등 선기대 군병의 대우는 『總衛營事例』의 料祿와 훈련도감 軍料 규정 등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총위영사례』에 의하면 선기대 군병은 말이 있으면 兼閑을 막론하고 매달 元料인 米 10斗에 兼料⁹³⁾ 3두를 추가한 13두를, 말이 없으면 出身·兼司僕은 미 12두 그리고 閑은 미 9두를⁹⁴⁾ 紿料로 받았다. 훈련도감은 마군에게 매달 쌀 10두와 콩 9두를 지급하되 말이 죽었으나 대신 세우지 못해 말이 없으면 쌀만 9두를 주었고, 겸사복, 말을 가진 마군, 각哨나 各色의 서자지에게도 3두를 더 주었다.⁹⁵⁾ 아울러 훈련도감·금위영·여영청 군병

91) 善騎將 표하군은 『武衛所提調都統使將官將校軍兵總數案』에서도 每哨에 5명씩 15명이었는데, 장용영은 매초에 6명씩 18명[『正祖實錄』 권37, 17년 1월 12일(병오), 37책, 5면: 『壯勇營大節目』 권1, 軍制 善騎將標下軍], 그리고 총위영은 隣旗手 2명을 포함하여 매초 10명씩 30명이었다(『總衛營事例』 권1, 軍色 軍制).

92) 표하군 등 선기대 군병의 직임별 나이와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선기대 군병의 직임별 나이와 수

직임별 나이별	標 下 軍	書 字 的	牌 頭	卜 馬 軍	認 旗 手	鼓 手	旗 摠	隊 摠	隊員	합계
15~19세	5명			1명				1명	95명	102명
20~29세	19명	7명	1명	3명	2명	3명		6명	143(미상 1)명	184(미상 1)명
30~39세	13명		2명		1명		4명	13명	38명	71명
40~49세	8명						2명	6명	16명	32명
50~59세	3명		1명				3명	1명	5명	13명
합계	48명	7명	4명	4명	3명	3명	9명	27명	297(미상 1)명	402(미상 1)명
평균 나이(세)	약 31.5	약 26.3	약 35.3	약 23.3	29	약 28.7	44	약 34.3	약 24.4 (401명)	약 26.6

93) 훈련도감의 마군·보군 중 겸사복으로 승급한 경우 추가로 大米(쌀) 1두와 小米(좁쌀) 2두를 더 주었는데, 이것을 元料와 구분하여 兼料라고 하였다(『萬機要覽』 軍政編 二, 訓鍊都監 軍料).

94) 『總衛營事例』 권4, 餉色 料祿 “善騎隊母論兼閑 有馬付十三斗 元料十斗 兼料三斗 無馬出身兼司僕者付十二斗 無馬閑付九斗爲白齊.”

95) 『萬機要覽』 軍政編 二, 訓鍊都監 軍料 “凡軍料皆計日支下 馬軍米十斗太九斗 無馬者 如馬匹致斃 未及立代者 米九斗 無太(中략) 其兼司僕者俱加三斗 馬軍之有馬者及各哨色書字의 雖不陞兼亦加三斗.”

은 춘·하·추 봉족료도 받았는데, 1년 이상 복무하면 木 9필을 그리고 1년 미만이면 실제 복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였다.⁹⁶⁾ 따라서 선기대 군병은 매달 급료로 말이 있으면 모두 쌀 13두와 콩 9두, 말이 없는 겸사복·출신은 쌀 12두 및 양인은 쌀 9두, 그리고 1년 이상 복무한 경우 춘·하·추 봉족료로 무명 9필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서자지·폐두는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경우 일반 군병보다 使役이 고되다는 이유로 米 3두 정도를 더 받은 것에서,⁹⁷⁾ 복마군은 봉족료 외에 草價로 훈련도감·어영청은 木 3필 그리고 금위영은 2필을 받은 것에서⁹⁸⁾ 다른 선기대 군병에 비해 米나 木이 추가로 지급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말의 有無가 선기대 군병의 대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라는 점에서, 군병의 納馬·改馬를 장용영 선기대의 馬政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⁹⁹⁾ 즉 선기대에 납마·개마할 때에는 狹馬나 체격이 크고 건실한 土山馬를

96) 『萬機要覽』軍政編 二, 訓鍊都監 軍料: 軍政編 三, 禁衛營 軍摠; 軍政編 三, 御營廳 軍摠.

97) 매달 훈련도감 서자지는 元料 米 9두 외에 米 3두를 그리고 폐두는 米 1두를 더 받았고, 금위영 서자지·폐두는 1석(15두)을 급료로 받았으며, 어영청 서자지·폐두는 米 3斗와 木 1필을 추가로 받았다(『萬機要覽』軍政編 二, 訓鍊都監 軍料: 軍政編 三, 禁衛營 軍摠; 軍政編 三, 御營廳 軍摠). 아울러 봉족료 외에 筆價로 훈련도감 서자지는 木 3필을 그리고 폐두는 1필을 더 받았다(『萬機要覽』軍政編 二, 訓鍊都監 軍料).

98) 『萬機要覽』軍政編 二, 訓鍊都監 軍料: 軍政編 三, 禁衛營 軍摠; 軍政編 三, 御營廳 軍摠.

99) 선기대 군병의 納馬·改馬는 『壯勇營大節目』 권1, 馬政과 『總衛營事例』 권2, 軍色 馬政에 수록되었는데, 두 자료의 내용이 대체로 비슷하다. 따라서 武衛所 선기대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壯勇營大節目』을 통해 선기대 군병의 납마·개마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一] (전략) 善騎隊納馬 則必以有閾疋(改馬同) ○土產馬 體大健實者 亦爲許捧 (중략)
善騎隊馬 則該將與別將 先爲看品 試馳一體 轉報 則大將仍請烙印(因公詣闕時舉行)爲白齊.

[一] 毋論將官將校軍兵 新差後 納馬日子 定給三次 而初次不納 則納馬後罰番二三日 再次不納 則決棍 三次不納 則決棍除料量 宜定限督納 又爲過限 則嚴棍汰去爲白齊.

[一] 善騎隊納馬(改馬同) 初限四十日 再限十日 三限七日爲定各 (중략) 爲白齊.

[一] 將校及善騎隊馬價 以百兩內外爲定爲白乎矣 (중략) 爲白齊.

[一] 善騎隊官馬 每哨母過三十四 以八年爲限 限內致斃者 徵出改立爲白乎矣 因公致斃(計其程道五十里內則勿爲添價) 陣上致斃 番所致斃者 限滿致斃者 幷給添價錢五十兩 使之改立 仍作官馬爲白齊.

[一] 善騎隊官馬有病還納者 紿給添價錢四十兩 使之改立 而一次受價後 如非因公致斃 則更

바치게 하였고, 선기장이나¹⁰⁰⁾ 별장 등이 말의 품질 및 달리기 일체를 살핀 후 대장에게 보고하여 烙印을 청하였다. 장관·장교·군병이 새로 임명된 후 納馬(改馬도 같음)의 기한은 1차 40일, 2차 10일, 3차 7일이었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1차 때는 納馬 후 별로 番을 2~3일 세우고, 2차 때는 곤장을 때렸으며, 3차 때는 곤장을 때린 후 급료를 줄이면서 납부를 독촉하였고, 그 후에도 기한을 어기면 곤장을 염하게 때린 후 선기대에서 내쫓았다. 官馬는¹⁰¹⁾ 1哨에 30필을 넘지 못하게 하되 8년간 사용하게 하였고, 그 전에 말이 죽으면 사용자가 물어내게 했으나 공적인 일(지나간 길이 50리 이내면 添價錢 안줌), 陣上, 番所, 기한이 거의 다되어 죽은 경우에는 100냥 내외의 馬價 중에서 첨가전 50냥을 주어 改立하게 하였다. 官馬가 병들어 還納된 경우 40냥을 주어 개립하게 하되, 한 차례 馬價를 받은 후에는 공적인 일로 죽은 경우가 아니면 첨가전을 주지 않고 해당 군병이 개립하게 하였다. 하지만 그 경우 私馬로 간주하여 官馬案에서 제외하고, 군병이 다른 부대로 옮겨가도 말을 되돌려 받지 않도록 하였다. 私馬는 공적인 일로 또는 재차 죽었을 경우 添價錢 50냥을 주어 改立하게 하고, 개립 후 4년의 기한이 되기 전 군병이 遷轉하거나 汰去되면 말을 반납한 후 4년이 지난 다음 私馬로 만들게 하였다. 私馬가 죽었을 때 군병의 才藝가 뛰어나지만 가난해 改立할 수 없으면, 2차 기한까지 기다리지 말고 대장·별장이 사정을 조사한 다음 임금께 아뢰어 관마를 지급하게 하였다. 아울러 馬才哨에서 納馬軍을 取才 할 때 1등을 한 군병에게는 모두 官馬를 주어 격려하도록 하였다.

勿添給 使渠責立 仍以官馬施行受價後 若再次改立 則以私馬施行爲白乎矣 既以私馬施行 則除案 或遷轉時 勿爲傳授爲白乎旣(中략)爲白齊。

[一] 善騎隊私馬致斃人中 或有才藝出類 而貧不能改立者 不待再次之限 雖初次 大將別般廉探後稟旨給官馬 馬才哨納 馬軍取才時 居首最高等者 一體給官馬 以爲激勸之地爲白齊。

100) 『承政院日記』 정조 16년 11월 2일(정유).

101) 제주도에서 歲貢·進上·別卜定 등으로 상납된 말 중 선기대가 속한 무위소에는 1874년 20필, 1875년 24필, 1876년 50필, 1877년 20필, 1878년 20필, 1879년 50필, 1880년 20필이 官馬로 제공되었다[『承政院日記』 고종 11년 7월 30일(경오), 고종 12년 8월 9일(계유), 고종 13년 7월 6일(갑자), 고종 14년 8월 11일(계사), 고종 15년 8월 27일(갑진), 고종 16년 8월 13일(갑인), 고종 17년 8월 21일(정사)].

이상에서 선기대 군병이 納馬·改馬할 때에는 재정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선기대군안』에서는 父의 이름은 물론이고 친척의 성명도 기재하여 연대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납마·개마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2) 書字的 · 牌頭

서자지·폐두는 본부와 좌·중·우초에 두루 설치되었고, 모두 兼司僕이었다. 현종대 총위영 書牌番所가 9칸 반이었다는 점에서¹⁰²⁾ 고종대 무위소 선기대의 서자지·폐두가 番을 서는 곳의 규모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자지는 본부 4명, 좌·중·우초에 각각 1명씩 모두 7명이 설치되었다. 훈련도감 서자지가 파총의 入番 單子나¹⁰³⁾ 초관의 受點 單子의¹⁰⁴⁾ 작성 등을 담당한 것에서, 선기대 서자지도 문서의 작성 등을 맡았다고 생각된다. 서자지의 평균 나이는 약 26.3세였다.

牌頭는 본부와 좌·중·우초에 각각 1명씩 4명이 설치되었다. 폐두는 牌의 우두머리로써 폐의 군사를 지휘하고, 말의 품질·달리기 등을 살펴보는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⁰⁵⁾ 조선전기에 牌는 50~150명 정도였고,¹⁰⁶⁾ 폐두는 갑사의 경우 上護軍(정3품)·大護軍(중3품)이, 그리고 내금위는 3~4품이 임명되었다.¹⁰⁷⁾ 조선후기 정조대 壯勇衛는 左·右列 폐두 1인이 각각 50명을 지휘했지만,¹⁰⁸⁾ 선기대 본부의 군병은 폐두를 포함하여 42명이고, 좌·중·우초도 각각 9명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龍虎營의 燈籠軍과 帳幕軍도 폐두를 포함한 폐의 숫자가 각각 10명이었다.¹⁰⁹⁾ 따라서 조선후기는 전기에 비해 폐의 숫자가 적은 경우가 있었고, 선기장

102) 『總衛營事例』 권3, 軍色 公解.

103) 『承政院日記』 영조 원년 2월 14일(임오).

104) 『承政院日記』 영조 24년 5월 22일(을사).

105) 『總衛營事例』 권4, 飼色 馬政.

106) 오종록, 1993 「조선초기의 燈籠軍」 『송갑호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705-706면.

107) 이재훈, 2010 「태종대 節制使·牌頭와 중앙군의 지휘」 『한국사학보』 39, 94면.

108) 『壯勇營大節目』 권1, 將校 “壯勇衛 一百二人 左右列 各五十人 牌頭二人 壬人期三十窠 丙午增四窠 己酉增十六窠 辛亥增五十二窠.”

109) 『萬機要覽』 軍政編 二, 附龍虎營 繢大典曰禁軍廳 標下軍.

인 선기대 초관이 정3품이므로 패두의 품계도 조선전기보다 낮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기대 패두의 평균 나이는 약 35.3세로 전체 군병의 평균 나이 약 26.6세 보다 9살 정도 많았는데, 패두는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경험과 노련함을 중시하여 선발하였으므로 그렇다고 여겨진다.

(3) 卜馬軍

복마군은 본부에만 4명이 설치되었다. 복마군은 行軍 때 군량·그릇·군복·장막 등 짐을 운반하는 임무를 담당했는데,¹¹⁰⁾ 훈련도감 복마군은 온천 행차 때 隨駕한 장교·군병 등이 밥을 지을 나무를 구하거나¹¹¹⁾ 封墓都監의 목재 운반 때 동원되기도 하였다.¹¹²⁾ 복마군이 犬馬나 몸이 크고 건실한 土山馬를 납부하면 해당 將領과 패두가 말의 품질·달리기를 살폈으며, 대장이 다시 품질을 확인한 후 馬案을 고치고 烙印을 청하였다.¹¹³⁾ 복마군은 겸사복 1명, 양인 3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약 23.3세로 직역별 나이에서 가장 어렸다. 짐을 나를 때 힘을 많이 써야 했으므로 젊은 군병을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

(4) 認旗手·鼓手

인기수와 고수는 좌·중·우초에 각각 1명씩 3명이 설치되었다. 인기수는 겸사복 2명, 양인 1명이었고, 고수는 겸사복 1명, 양인 2명이었다. 인기수의 평균 나이는 29세이고, 고수는 약 28.7세였다. 인기수는 旗의 방향과 흔들기 등을 활용하여,¹¹⁴⁾ 고수는 북을 쳐서 소리로 신호를 보내는 임무를 담당하였다.¹¹⁵⁾ 실제

110) 『備邊司詹錄』 43책, 숙종 15년 10월 4일: 『肅宗實錄』 권62, 44년 9월 24일(기해), 41책, 38면.

111) 『備邊司詹錄』 70책, 숙종 43년 3월 17일.

112) 『肅宗實錄』 권62, 44년 9월 24일(기해), 41책, 38면.

113) 『總衛營事例』 권4, 飼色 馬政 “別抄善騎隊及各哨色卜馬所納馬匹 大將看品擇捧 修正馬案後 烙給武字爲白齊. 節目 馬匹 必以犬馬及土產中體大健實者擇捧 該將領及牌頭 先看試馳後轉報 則大將更爲看品 以捧修正馬案後 請出烙印烙給.”

114) 『兵學指南演義』 「旗鼓總訣」 “搖旗謂之磨 是要將領赴 挥旗爲之要麾是要散回”(국방군사연구소, 1995 『兵學指南演義(1): 조선후기 군사교범』, 193면).

115) 『兵學指南演義』 「旗鼓定法」 권1, 用車 明鼓號 “凡點鼓是行營 一聲約行二十步 點緊鼓是緊行 一聲行一步 擂鼓是交鋒 要向兵前與賊廝相衣反殺”(위의 책, 72면).

로 선기대에서 旗·鼓의 활용을 19세기 중반 현종대 『總衛營習操笏記』의 善騎隊追擊步軍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砲를 한 번 쏘아 소리가 들리면 別將旗를 세운다. 별장기가 步軍鎮을 향해 가리키면 點鼓에 이어 擂鼓한다. 아울러 天鵝聲을 불면 기병이 보군을 추격하여,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전투를 전개한다. 1차례 징을 울리면 旗를 뉘어 놓아다가,砲를 한 번 쏜 소리가 들리면 별장기를 세워 뒤를 향해 가리키게 한다. 징을 2번 울리고 大吹打를 하면 기병은 信地로 돌아오며, 징 울리는 것과 吹打를 정지한다.¹¹⁶⁾

즉 기병인 선기대가 보병을 추격하는 조련에서, 먼저 명령을 내리는 砲를 한번 쏜 다음 別將旗를 세웠다.¹¹⁷⁾ 별장기를 步軍鎮을 향하게 한 후 북소리 한 번에 20步를 전진하라는 신호인 點鼓에 이어, 군병들로 하여금 진격하여 적을 매우 심하게 치라는 신호로 북을 연달아 쳐서 우레와 같이 울린 擂鼓를 하였다. 아울러 군병으로 하여금 함성을 일제히 지르거나 銃手가 총을, 그리고 弓手가 화살을 일제히 발사하라는 신호로 天鵝聲 즉 한번 긴소리로 나팔을 불자, 기병이 보군을 추격하고 일제히 큰소리를 외치면서 싸움을 벌였다. 1차례 징이 울리고 旗도 뉘어 놓은 상태에서, 명령을 변경하는 신호포 소리가 들리자 별장기를 세워 뒤를 향하게 하였다. 이어 징이 2번 울리고 지휘관과 군병을 책임구역인 信地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大吹打를 하자, 기병은 책임구역으로 되돌아왔다. 이어 징 울리는 것과 여러 악기를 일제히 울리는 吹打를 그치면서, 선기대가 보군을 추격하는 조련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旗는 군병의 진격·후퇴 지시는 물론이고 어떤 지휘관이나 부대가 참여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에, 그리고 鼓는 군병에게 행군의 시작·속도 및 交戰의 지시 등을 내리는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6) 『總衛營習操笏記』, 以善騎隊追擊步軍 “放砲一聲 立別將旗 向步軍鎮點 點鼓擂鼓 吹天鵝聲 騎兵追擊步軍 呐喊作戰 一次鳴金仆旗 放砲一聲 立別將旗 向後點 鳴金二下 大吹打騎兵到信地 鳴金吹打止。”

117) 별장기를 세운 후 다시 포를 1번 쏜 다음, 조련에 참여한 左哨(左善騎隊)가 사용하는 藍門旗도 세웠다(『總衛營習操笏記』, 以善騎隊追擊步軍 “只用左善騎隊 則放砲一聲 立別將旗 放砲一聲 立藍門旗”).

(5) 旗摠 · 隊摠 · 隊員

『紀效新書』에서 1旗는 3~5隊, 1哨는 3~5旗, 1司는 3~5哨, 1營은 3~5司, 1師는 3~5營인데,¹¹⁸⁾ 선기대 1기는 3대이고 1대에 대총 1명과 대원 11명이 배치되었다. 우선 旗摠은 좌·중·우초에 3명씩 9명이, 隊摠은 좌·중·우초에 9명씩 27명이, 隊員은 좌·중·우초에 99명씩 297명이 설치되었다. 대원은 전체 군병 402명의 약 74%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왕의 호위와 궁궐의 숙위를 담당하는 선기대의 주축임을 알 수 있다. 평균 나이는 기총은 44세로 가장 많았고, 대총은 약 34.3세로 기총과 패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미상 1명을 제외한 대원 296명의 평균 나이는 약 24.4세였다. 기총은 3隊 33명 및 대총 3명으로 구성된 1旗를 그리고 대총은 11명의 대원을 지휘했으므로 경험과 노련함을 중시하여 나아가 많은 군병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총은 9명 모두 兼司僕이었고, 대총은 겸사복 18명 및 양인 9명, 대원은 출신 4명, 겸사복 53명, 양인 240명이었다. 그런데 기총은 36명의 군병을 그리고 대총도 11명의 군병을 지휘하였으며, 기총·대총은 從事官·將官·將校과 함께 褒貶을 받는 규정도 있었다.¹¹⁹⁾ 더욱이 훈련도감·금위영·여영청·哨官이 종9품인데 비해 선기대 초관인 선기장은 정3품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각 營의 旗摠이 雜職 정8품이고 隊長(隊摠)이 종8품인 것보다는¹²⁰⁾ 선기대 기총·대총의 품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총·대총에게는 다른 군병보다 급료를 더 제공해주는 등의 혜택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군병의 거주지

고종대 선기대 군병의 거주지에 대해 알아보면 <표 5>와 같다.

118) 『紀效新書』 권1, 束伍篇.

119)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12월 15일(신축); 『承政院日記』 고종 14년 12월 15일(을미).

120) 『續大典』 권4, 兵典 雜職 各營軍士 正八品 旗摠 從八品 隊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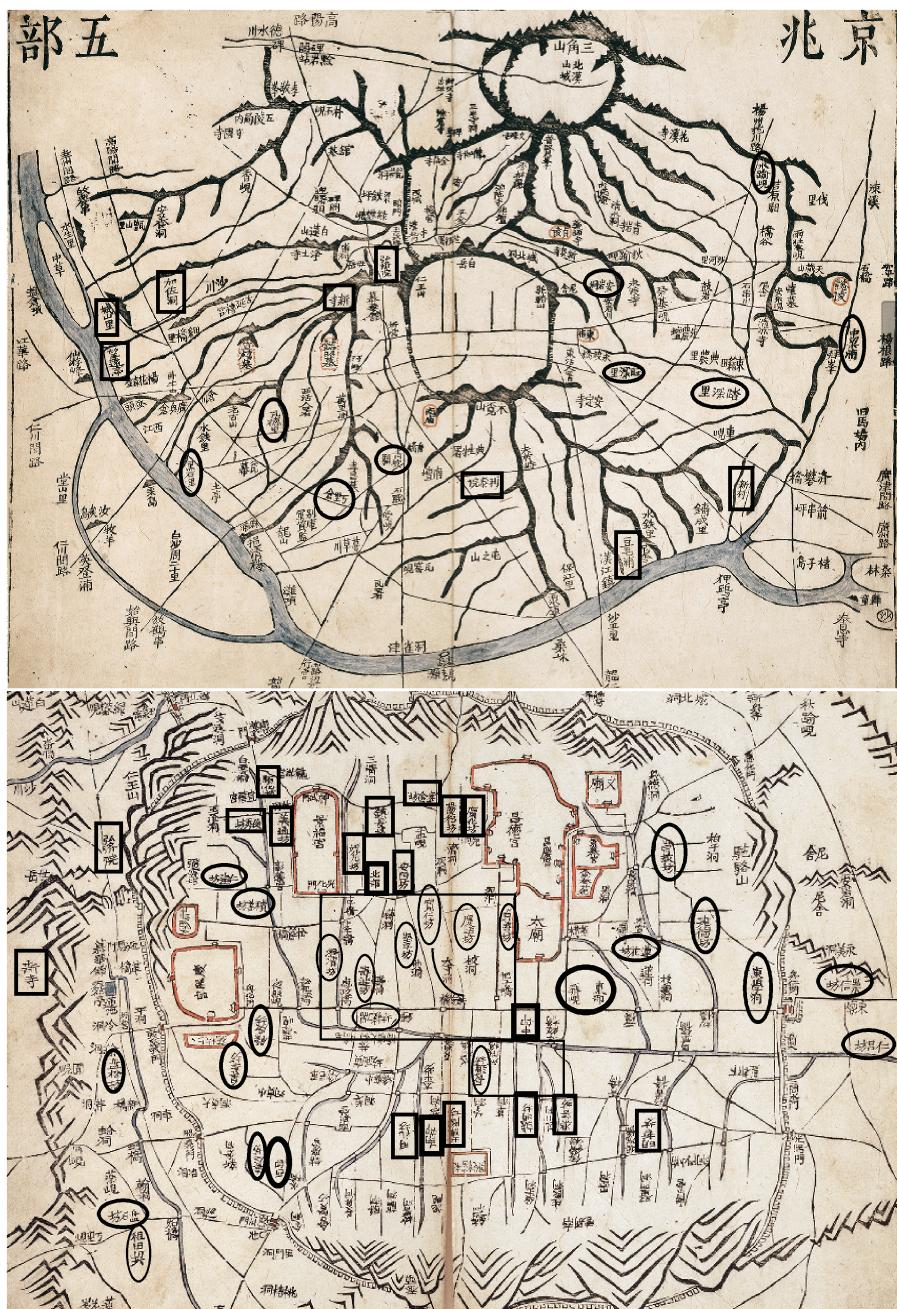
〈표 5〉 선기대 군병의 거주지

(단위: 명)

거주지 편제	서울					경기			합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미상	양성현	삭녕군	남양부	
本部	28	3	8	1		1	1		42
左哨	35	3	75	7					120
中哨	70	13	35	1				1	120
右哨	70	12	34	3	1				120
합계	203	31	152	12	1	1	1	1	402

즉 선기대 군병 402명의 거주지는 서울 399명과 경기 3명이었다. 본부 42명 중 40명의 거주지가 서울 東部 28명, 西部 3명, 南部 8명, 北部 1명이고, 2명은 京畿 양성현 남면 1명과 삭녕군 북면 1명이었다. 左哨 120명의 거주지는 모두 서울인데, 동부 35명, 서부 3명, 남부 75명, 북부 7명이었다. 中哨 120명 중 119명의 거주지는 서울 동부 70명, 서부 13명, 남부 35명, 북부 1명이었고, 나머지 1명은 경기 남양부 며지곶면이었다. 右哨 120명의 거주지는 모두 서울이었는데, 미상 1명을 제외한 119명은 동부 70명, 서부 12명, 남부 34명, 북부 3명이었다. 따라서 경기 3명과 미상 1명을 제외한 선기대 군병 398명의 거주지는, 서울 동부 203명, 서부 31명, 남부 152명, 북부 12명이었다. 이처럼 선기대 군병의 거주지가 서울에 집중된 것은, 선기대는 국왕을 호위하고 궁궐을 수호하는 중앙군이므로 거주지가 서울인 군병이 복무도 편리하고 신속한 동원 등에도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1861년(철종 12) 제작된 『大東輿地圖』의 「京兆五部圖」를 통해, 선기대가 소속된 무위소 본영과 군병이 거주하였던 동부·서부·남부·북부의坊·里·洞·峴·浦 등을 살펴보면 다음의 〈지도 1〉과 같다.

〈지도 1〉 「京兆五部圖」¹²¹⁾



121) 『大東輿地圖』(奎 10333), 「京兆五部圖」.

〈지도 1〉은 『大東輿地圖』의 「京兆五部圖」인데, 위 지도는 도성 밖 東部·西部·南部·北部를 그리고 아래 지도는 도성 안의 中部·동부·남부·서부·북부를 중심으로坊·里 등을 기재하였다.

첫 번째로 동부에는 선기대 군병 402명 중, 가장 많은 203명이 거주하였다. 그 이유는 1874년 훈련도감 東別營을 新營으로 옮긴 다음 그 자리에 선기대가 소속된 武衛所 본영이 新設된 것.¹²²⁾ 그리고 선기대 군병 185명이 훈련도감에서 전속된 것과¹²³⁾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선기대 군병이 동부에 많이 거주한 것은, 군병이 살지 않은 중부에 비해 거주관련 비용이 적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복무 장소에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동별영이 있었던 곳은 「京兆五部圖」의 아래 지도에서 중앙에 위치한 중부의 오른 쪽 원에 동부와 함께 기재된 梨峴으로, 현재 종로구 인의동 지역이다. 梨峴에는 정조대 장용영과¹²⁴⁾ 현종대 총위영의¹²⁵⁾ 本營(內營)이 설치되었던 장소이므로, 무위소는 장용영·총위영과 친위군이라는 공통점은 물론이고 본영의 설치장소도 같았다. 동부에는 蓮花坊 등 7坊과 宗廟契 등 43契가 있었는데,¹²⁶⁾ 이와 연관된 지명이 위 지도의 도성 밖 오른 쪽 원과 아래 지도의 중부 오른 쪽 원에 표기되었다. 즉 도성 안의 경우 동부 오른 쪽 위에 蓮花坊이, 연화방 오른 쪽 위에 崇教坊이, 숭교방 오른 쪽 아래에 建德坊이, 건덕방 오른 쪽 아래에 昌善坊에 속한 東學洞이 기재되었다. 아울러 동학동 오른 쪽으로 도성 밖에 崇信坊과 仁昌坊이 있는데, 위 지도에서는 승신방 소속 安岩洞·水踰峴 등과 인창방 소속 往十里·踏十里·中浪浦 등이 표

122)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7월 27일(정묘).

123) 훈련도감 출신 선기대 군병 185명의 거주지에서도 동부 93명, 서부 6명, 남부 75명, 북부 4명으로, 동부가 9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남부로 75명이었다.

124) 『壯勇營大節目』 권1, 廳舍 “壯勇營 丁未冊 以梨峴舊宮移屬添建 內大廳二十四間 東方二間 挾房半間 西方二間 廳十二間 退七間。” 장용영이 위치한 梨峴은 梨峴宮이 있었던 곳인데, 1799년 및 1801년에 제작된 『本營圖形』에는 종로에서 창덕궁과 창경궁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한 梨峴大路 우측(동면)에 장용영 营舍가 그려져 있다(이왕무, 앞의 논문; 이왕무, 앞의 책, 523-542면; 정정남, 앞의 논문).

125) 『總衛營事例』 권3, 軍色 公廡.

126) 『六典條例』 권4, 戶典 五部坊里(경문사영인본, 1979 『六典條例』 上, 586-591면). 한성부부·坊·契의 변천에 대해서는 원영한, 1990 『조선시대 한성부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46-54면이 참고가 된다.

기되었다.

두 번째로 남부에는 선기대 군병 152명이 거주하였다. 중부에는 선기대 군병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동부 다음으로 무위소 본영에 가까운 남부에 두 번째로 많은 군병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남부에는 會賢坊 등 11방과 小公洞契 등 71계가 설치되었는데, 이와 연관된 지명이 위 지도의 도성 밖 아래의 네모와 아래 지도의 중부·동부 밑의 네모 안에 표기되었다. 즉 도성 안의 경우 아래 지도에서 중부 아래 직사각형이 남부의 여러坊인데, 왼쪽 첫 번째 네모인 明禮坊으로부터 오른 쪽으로 南部→薰陶坊→誠明坊→樂善坊→明哲坊 등이 기재되었다. 아울러 도성 밖에는 豆毛坊·漢江坊·屯之坊이 있는데, 위 지도에는 두모방 소속 新村·豆毛浦 등과 둔지방 소속 梨泰院 등이 표기되었다.

세 번째로 서부에는 선기대 군병 31명이 거주하였다. 서부에는 仁達坊 등 9방과 黑石里契 등 91계가 설치되었는데, 이와 연관된 지명이 위 지도의 도성 밖 왼쪽 아래의 원과 아래 지도의 왼쪽 하단 및 경복궁 왼쪽 아래 원 안에 표기되었다. 즉 아래 지도에서 남부 왼쪽 明禮坊의 바로 왼쪽 원이 서부인데, 서부 왼쪽에 養生坊, 양생방 바로 위에 餘慶坊, 여경방 왼쪽 바로 아래에 皇華坊, 여경방 위에 積善坊, 적선방 약간 왼쪽 위에 仁達坊 등이 기재되었다. 아울러 도성 밖에는 盤松坊·盤石坊·龍山坊·西江坊이 있는데, 아래 지도에는 반석방 소속 租田契 등이 그리고 위 지도에는 서강방 소속 黑石里 및 용산방 소속 青坡駢·孔德里·萬里倉 등이 표기되었다.

네 번째로 북부에는 군병 12명이 거주하였다. 북부에는 順化坊 등 12방과 宣惠廳契 등 44계가 설치되었는데, 이와 연관된 지명이 위 지도의 도성 밖 왼쪽 네모와 아래 지도의 중부 왼쪽 큰 네모 위쪽에 표기되었다. 즉 도성 안의 경우 아래 지도에서 경복궁의 맨 아래 오른 쪽 네모가 북부인데, 북부의 약간 왼쪽 위에 觀光坊, 북부의 바로 위에 鎮長坊, 북부의 약간 오른 쪽 위에 安國坊과 嘉會坊, 가회방의 오른 쪽에 陽德坊과 廣化坊, 景福宮 왼쪽에 義通坊, 의통방 왼쪽에 俊秀坊, 의통방 위에 順化坊 등이 기재되었다. 아울러 도성 밖에는 延禧坊·延恩坊이 있는데, 위 지도에 延禧坊 소속 加佐洞·城山里·望遠亭 등이 그리고 위와 아래 지도에 연은방 소속 弘濟院·新寺 등이 표기되었다.

한편 선기대 군병이 거주하지 않은 중부에는 長通坊 등 8坊과 備邊司契 등 92契가 설치되었다. 중부의坊 등은 아래 지도 중앙의 중부 왼쪽 큰 네모와 중부 바로 아래 네모 안의 왼쪽 끝 원에 기재되었다. 즉 중부의 위 太廟의 왼쪽 貞善坊 → 慶幸坊 → 寬仁坊 → 堅平坊 → 壽進坊 → 澄清坊, 중부와 같은 선상 왼쪽 瑞麟坊과 중부의 바로 왼쪽 아래에 長通坊이 기재되었다. 아울러 관인방 소속 大寺洞 등도 확인된다.

4. 맷음말

이상에서 1880년(고종 17) 작성된 중앙군 군인인 『善騎隊軍案』에 대해 기재 양식과 기재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기대군안을 16~19세 후반 지방 육군·수군 군안과 기재 양식을 비교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공통성과 차별성이 엿보인다.

먼저 『선기대군안』은 다른 군안과 기재 항목 중 職任, 신분, 성명, 나이, 소속 고을, 거주지, 身長, 수염, 흉터 등이 공통적이었다. 그런데 군병의 성명은 『선기대군안』에는 제대로 표기되었지만, 1890년 『平薪鎮舟師軍兵辛卯式草都案』에는 약 37.4%인 79명의 이름이 牙只였고 16~18세기 말 속오군 관련 군안에서는 이름만 기재된 奴도 확인된다. 아울러 父名은 19세기 말 『선기대군안』에는 17세기 말 『濟州東伍軍軍籍簿』처럼 정확히 기재되었으나, 18세기 말 『河東府東伍軍兵保人戊午式改都案』이나 19세기 후반의 육군박물관 소장 군안에서는 父名을 夫으로 그리고 『평신진주사군병신묘식초도안』에서는 夫支로 표시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 반면 『선기대군안』은 군병의 용모를 18세기 말 이후 군안처럼 ‘長四尺面鐵鬚无力百斤疤痕无’로 획일적으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16~17세기 군안에 비해 용모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선기대는 실제로 조련하고 국왕의 호위와 궁궐의 숙위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조총 등 火器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용모보다는 아버지·친족의 연대보증을 통해 군병을 관리하는 측면이 중요시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선기대군안』에는 다른 군안과 달리 출생한 해의 간지, 친족의 성명, 다른 부대에서 이속한 군병의 경우 그 해의 간지와 월 및 前 소속 부대 등이 기재되었다. 출생한 해의 간지를 통해 『선기대군안』의 나이는 군병이 각종 군대에募入·卜入했거나 속오군에 편성되었을 때의 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선기대군안』에 親族의 성명도 기재한 것은 군병의 선발·충원에서 내실화를 꾀하고 도망이나 納馬·改馬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친족에게도 책임을 물어 군병의 관리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선기대군안』에서 전속된 군병의 경우 옮겨 온 해와 달 및 前 소속 군대까지 표기한 것은, 선기대가 소속된 무위소는 친위군으로 신설되었으므로 훈련도감 등에서 군병을 확보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혹 선기대가 폐지될 경우 군병이 환속될 곳을 알아두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기대군안』의 기재 내용을 군병의 선발·충원, 나이, 직임별 數·기능·신분, 거주지를 통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위소에 소속된 선기대 군병 402명의 선발·충원된 해와 수는 1874년 212명, 1875년 15명, 1876년 14명, 1877년 4명, 1878년 12명, 1879년 131명, 1880년 12명, 미상 2명이었고, 방법과 수는 轉屬 220명, 募入 177명, 占入 1명, 兼役 3명, 還屬 1명이었다. 전속 220명 중에서 훈련도감 출신이 18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선기대는 매달 급료를 제공하였으므로 募入도 177명이나 되었다. 특히 1879년 선기대 중초의 신설 때는, 한 해 숫자로는 가장 많은 121명의 군병이 모집되었다.

선기대 군병이 각종 군대에募入·卜入하거나 속오군에 들어간 나이는, 10대 330명, 20대 63명, 30대 8명, 40대 1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약 17.4세였다. 10대가 33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15세가 111명으로 최고였다. 15세가 正軍에 편성된 것은 군대의 신설, 전염병이 심하여 군병이 많이 죽음으로써 군병이 부족한 경우 등으로 여겨진다. 『선기대군안』이 작성된 1880년 군병의 나이는 『선기대군안』의 나이에다가 1880년에서 각종 군대에 편성된 해를 뺀 차이를 더하면 되는데, 1880년 군병의 나이는 15~59세였고 미상 1명을 제외한 군병 401명의 평균 나이는 약 26.6세였다. 양인 284명은 약 23세, 겸사복 114명은 약 35세, 출신 4명은 48세였다. 양인 군병이 試才 등을 통해 겸사복으로陞級하는 데에 시

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겸사복은 양인보다 나이가 많았고, 출신은 무과 합격자이므로 가장 나이가 많았다고 여겨진다.

선기대 군병의 공통적 기능은 국왕을 호위하고 궁성을 수호하는 것이었는데, 職任別 數·기능·신분 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하군은 선기대 최고 지휘관인 別將과 좌·중·우초 지휘관인 善騎將의 手下兵이다. 별장 표하군은 본부에 42명, 선기장 표하군은 좌·중·우초에 5명씩 15명이 설치되었다. 따로 살펴본 본부 서자지·패두·복마군을 제외한 표하군 48명의 평균 나이는 약 31.5세였고, 양인 29명·겸사복 19명이었다. 표하군 등 선기대 군병은 『總衛營事例』와 훈련도감 규정 등에 의하면, 매달 말이 있으면 모두 미 13두와 콩 9두를, 말이 없으면 出身·兼司僕은 미 12두 및 양인은 미 9두, 그리고 춘·하·추 봉족료로 1년 이상 복무한 군병은 무명 9필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서자지·패두는 일반 군병보다 使役이 고되다는 이유로 米 3두 정도를, 복마군은 무명 2~3필의 草價 등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자지·패두는 본부와 좌·중·우초에 두루 설치되었고, 모두 兼司僕이었다. 서자지는 본부 4명 및 좌·중·우초에 각각 1명씩 7명이 설치되는데, 서자지는 문서의 작성을 맡았다고 생각된다. 서자지의 평균 나이는 약 26.3세였다. 牌頭는 본부와 좌·중·우초에 각각 1명씩 모두 4명이 설치되었는데, 牌의 우두머리로써 패의 군사를 지휘하고 말의 품질·달리기 등을 살펴보았다. 평균 나이는 약 35.3세였다. 패두는 牌의 지휘관이므로 군대생활의 경험이 많고 노련함이 돋보이는 군병을 선발함으로써, 전체 군병의 평균 나이 약 26.6세보다 약 8.7세 정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복마군은 본부에 4명이 설치되었다. 복마군은 行軍 때 군량·그릇·군복·장막 등 짐을 운반하였다. 평균 나이는 약 23.3세로 가장 어렸는데, 짐을 나를 때 힘을 많이 써야 했으므로 젊은 군병을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 복마군은 겸사복 1명, 양인 3명이었다. 인기수·고수는 좌·중·우초에 각각 1명씩 3명이 설치되었다. 인기수는 旗의 방향과 혼들기 등을 활용하여 신호를 보냈고, 평균 나이는 29세였다. 고수는 북을 쳐서 소리로 신호를 보냈으며, 평균 나이는 약 28.7세였다. 아울러 인기수는 겸사복 2명, 양인 1명이고, 고수는 겸사복 1명, 양인 2명이

었다. 旗摠은 좌·중·우초에 3명씩 9명이, 隊摠은 9명씩 27명이, 隊員은 99명씩 297명이 설치되었다. 대원은 선기대 군병 402명의 약 74%이므로 선기대에서 주축을 이루었다. 평균 나이는 기총이 44세로 가장 많았고, 대총은 약 34.3세이며, 대원은 약 24.4세였다. 기총은 36명을 그리고 대총은 11명을 지휘하였으므로 경험·노련함을 고려하여 나이가 많은 군병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기총 9명은 모두 겹사복, 대총은 겹사복 18명 및 양인 9명, 대원은 출신 4명, 겹사복 53명, 양인 240명이었다.

선기대 군병은 서울에 399명 그리고 경기에 3명이 거주하였다. 군병의 거주지가 서울에 집중된 것은, 선기대는 국왕을 호위하고 궁궐을 숙위하는 중앙군이므로 거주지가 서울인 군병이 복무도 편리하고 신속한 동원에도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미상 1명을 제외한 서울 군병 398명의 거주지는, 東部 203명, 西部 31명, 南部 152명, 北部 12명이었다. 동부에 가장 많은 203명의 군병이 거주한 이유는, 동부 梨峴에 무위소 본영이 新設되고 선기대 군병 중 다수를 차지하는 옛 훈련 도감 군인이 복무했던 東別營이 무위소 본영과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남부에 152명, 서부에 31명, 북부에 12명이 거주하였으나, 중부에는 군병이 거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기대 군병은 복무 장소에 가까우면서도 거주관련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 많이 살았다고 여겨진다.

한편 19세기 중앙군 군안인 『선기대군안』과 다른 중앙군 군안과의 비교, 국왕의 호위 및 궁궐의 숙위와 관련하여 선기대와 다른 군대의 병력 동원 규모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것은 후일의 과제로 미루려 한다.

주제어 : 선기대군안, 기재 양식, 중앙군, 선발·충원, 나이, 기능, 거주지

투고일(2015. 10. 22), 심사시작일(2015. 11. 4), 심사완료일(2015. 11. 19)

〈Abstract〉

Analysis of ‘Documentation format and Contents’
of the 『Seon’gi-dae Gun’an(善騎隊軍案)』

Seo Tae-won*

『Seon’gi-dae Gun’an』 was created in 1880(17th year of King Gojong’s reign) as a list of soldiers put in Central army service. It is essentially an official material that lets us know the inner structure of the Seon’gi-dae unit.

But a comparison made with local army soldier lists, created between the 16th and 19th centuries, also reveal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at existed between ‘Central capital soldier lists’ and ‘local region soldier lists’. 『Seon’gi-dae Gun’an』, and local regions’ soldier lists, share some similarities in terms of the documented information. Just like local soldier lists(including lists for the Sog’o-gun: 東伍軍) made in the 16 · 17 · 18 · 19th centuries, and navy lists created in the late 19th century. 『Seon’gi-dae Gun’an』 also documented soldier’s official duties, social status, name, age, county he was associated with, living address, height, and even whether or not he had a mustache and a scar. But it also had additional information, like the Ganji(干支) designation of the year he was born, name of his relatives, Ganji designation of the year and date he was transferred if he was, and the title of his former unit.

Also, in 『Seon’gi-dae Gun’an』 statistical information concerning selection/recruitment, age, number of soldiers/function/social status were classified by soldier’s official duties, and current addresses were all inserted as well. From 1874 till 1880, total of 402 soldiers were either selected or recruited. 220 souls were transferred in, while 177 of them were recruited, and 5 others were summoned through various occasions(bokib<卜入>1, gyeomyek<兼役>3, hyansok<還屬>1). The average enlistment age in the Seon’gi-dae unit was 17.4. Among them, 15 year-olds were 111, and formed the largest group in the unit. Major recruiting was implemented when additional units were newl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Mokwon University.

organized, or a large number of soldiers were killed by contagious diseases. In 1880, when this 『Seon'gi-dae Gun'an』 was first created, various ages of individual soldiers ranged between 15 and 59, and with the exception of one individual whose age was never reported, the average age of the whole group was 26.6. Average age of the Commoners were around 23, while 'Gyeomsabok(兼司僕)' figures showed 35 and 'Chulshin(出身)' figures showed 48.

Number of soldiers were classified by soldier's official duties as follows. 48 of them served as 'Pyoha-gun(標下軍) soldiers(not counting headquarters' Seojaji(書字的), Paedu (牌頭) and Bokma-gun(卜馬軍) figures,' 7 Seojaji figures, 4 Paedu figures, 4 Bogma-gun figures, 3 In'gi-su(認旗手) figures, 3 Gosu(鼓手) figures, 9 Gichong(旗摠) figures, 27 Daechong(隊摠) figures, and 297 Daewon(隊員) figures. Seon'gi-dae(善騎隊) unit was in charge of guarding the king and protecting the palace. The Pyoha-gun soldiers served as assistants to the Byeol-jang(別將) and Seon'gi-jang(善騎將) officers. Seojaji figures were in charge of drafting documents while Bogma-gun soldiers were used in carrying freights. In'gi-su and Gosu figures were in charge of sending signals with flags and drums. Gichong, Paedu and Daechong figures also served as field commanders. The average age of the Bokma-gun soldiers was the lowest(23.3), and that of the Gichong figures were the highest(44). The former's duties often involved employment of physical strength, so younger soldiers must have been used, while for the latter, which usually served in command, old and experienced personnel would have been undoubtedly favored. Among soldiers, there were 284 commoners, constituting the largest group inside, while 114 soldiers were from the Gyeomsabok category, and 4 from the Chulshin category. According to 『Chong'wiyeong-Sa'rye(總衛營事例)』 and the Hun'ryeon-Dogam (訓鍊都監) regulations, soldiers of Seon'gi-dae received every month "13 Du(斗) of rice and 9 Du of beans" 'when they had a horse,' and in case of 'having no horse,' "commoners received 9 Du of rice" while "Chulshin and Gyeomsabok figures received 12 Du of rice."

Among the 402 soldiers, 399 of them were living in the capital, while only 3 of them lived in the Gyeonggi(京畿) province. Because they were in charge of guarding the king and protecting the palace, they had to be mobilized fast, so people already living in the capital would have been considered as ideal (and viable) choices for

recruitment. 203 soldiers were also living in the Dong-bu(東部: The eastern area), partially because the Dong-byeolyeong(東別營) of Hun'ryeon-Dogam, where the old Hun'ryeon-Dogam soldier who were also mostly transferred to the new Seon'gi-dae unit had been stationed, was originally on the east side of the capital. Heavy concentration of recruited soldiers in the capital's east side was also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Muwi-so(武衛所) HQ, which was the senior entity of Seon'gi-dae, was established in the old Dong-byeolyeong, after it was moved to another location.

Key Words : Seon'gi-dae Gun'an(善騎隊軍案), documentation format, Central army, selection/recruitment, age, function, living area